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 유형별 상담요구 및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인 도출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책임 연구자 : 황 순 길

공동 연구자 : 손 재 환

전 연 진

송 미 경

김 태 성

명 재 신

양 민 정

허 미 경

김 남 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 182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 유형별 상담요구 및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인 도출

| 인 쇄 : 2014년 12월

| 발 행 : 2014년 12월

| 발 행 인 : 권 승

|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24 / F. (051)662-3007

<http://www.kyci.or.kr>

| 인 쇄 처 : 전우용사촌

<비매품>

ISBN 978-89-8234-547-0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 유형별 상담요구 및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인 도출

/ 책임연구자: 황순길 ; 공동연구자: 손재환, 전연진, 송미경, 김태성,
허미경, 명재신, 양민정, 김남희.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82)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ISBN 978-89-8234-547-0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334.3-KDC5

362.7-DDC21

CIP2014036328

CYS-Net 사업의 핵심인 청소년동반자는 지난 10여년 동안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자살, 미디어중독 등을 포함한 청소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동반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이전에 비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기청소년을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청소년동반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좀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상담 요구를 알아보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청소년동반자를 만나 상담의 실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동반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입 내용과 개인적·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나가는데 기여할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청소년동반자가 만나는 청소년들의 문제유형별 개입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과 질적 연구에 참여해 주신 동반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미경 교수님, 손재환 박사님, 전연진 박사님과 본원의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원장 권 승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찾아가는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2005년 시범사업 출범 이후, 위기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개입을 해오고 있다. 가출,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살 등 위기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문제는 그 수와 유형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어느 특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동반자가 만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계층으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담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개입방안 도출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동반자들에게 의뢰된 내담자들의 문제유형과 유형별 상담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동반자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CQR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동반자는 2013년 종결 사례수를 기준으로 1명의 청소년에게 평균 9.1회의 개인상담과 21.5회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진행해야 하는 사례 수에 비해서 더 많은 개입이 이루어져 청소년동반자들이 상담 이외에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 조기종결 1,243명 중 570명(45.9%)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거부하여 종결되었고,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 및 가출, 연락두절로 인한 조기종결도 각각 233명(18.7%)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자발적인 청소년에 대한 개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부모개입이 초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져 상담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문제 계층 분류와 계층별 상담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환경 실태의 측면에서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가정형태가 이혼가정(32.1%), 재구성 가정(8.2%), 편모 가정의 비율(17.2%)이 높은 편이고 부모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74.9%)이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운 편(48.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문제’, ‘가족문제’,

‘학교·또래 문제’, ‘지역사회 문제’로 구분된 주요 청소년 문제유형에 따른 잠재계층 분석 결과 2계층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각각은 고위험 계층과 저위험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계층은 2개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유형을 공존한 유형이며 저위험 계층은 1개 미만의 문제유형을 가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각 계층별 상담요구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계층의 경우 상담의 효과를 저해하는 내적 방해 요인과 가족 방해 요인이 저위험 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 계층에게는 충동성, 부정적 성격, 우울한 기질 등이 저위험 계층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내적 기질을 다루어 줄 효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가족의 무관심, 갈등, 불화 등이 고위험 계층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에 대한 상담개입이 고위험 계층에는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상담자 요인으로는 청소년동반자의 전문 역량이 가장 전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담자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 등 가정의 역할이 가장 전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와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히 2개 이상의 문제가 공존하는 고위험 계층의 경우, 상담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가족의 문제가 나타나 개인상담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치료적 관점의 연장선 상에서 부모의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상담의 성과에서 필요하다고 지각된 청소년동반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동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문제유형에 대한 이해와 고위험군 저위험군 등 문제 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문제유형에 맞는 특성들이 충분히 고려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동반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현황과 상담요구를 파악하고 효과적 상담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잠재계층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실제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유형별 현황과 상담요구 및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정책적 제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추후 청소년 유형별·개인 특성별로 구체적인 상담개입 전략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등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CONTENTS

I. 서론 _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 과제 4

II. 이론적 배경 _ 5

- 1.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운영현황 및 특성 5
- 2.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유형 11
- 3. 청소년동반자 상담 관련 선행연구 24

III. 연구방법 _ 29

- 1. 청소년동반자의 상담 현황 분석 29
- 2.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 계층 분류 30
- 3. 효과적인 상담요인 도출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심층면접 32

IV. 연구 결과 _ 36

- 1. 청소년동반자 현황조사 결과 36
- 2.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 계층 분류 결과 39
- 3. 청소년동반자 심층면접 결과 52

V. 논의 및 시사점 _ 55

- 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5
- 2. 정책제언: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 MST) 59

| 참고문헌 _ 63

| 부록 _ 69

| ABSTRACT _ 87

| 표목차

[표Ⅱ-1] 수해청소년 목표 인원 및 실적	6
[표Ⅱ-2] 대상청소년 위험군 분포	11
[표Ⅲ-1] 2014년 현황조사 참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
[표Ⅲ-2] 동반자용 설문 문항	30
[표Ⅲ-3] 상담요구	31
[표Ⅲ-4] 리질리언스	32
[표Ⅲ-5] 학대	32
[표Ⅲ-6]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33
[표Ⅲ-7] 심층면접 질문 구성	35
[표Ⅳ-1]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재학 상태	39
[표Ⅳ-2]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학년상태	39
[표Ⅳ-3] 동반자 수해 청소년이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	39
[표Ⅳ-4]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가정형태	40
[표Ⅳ-5]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경제수준	40
[표Ⅳ-6] 동반자 수해 청소년에 대한 물질 및 정서지원의 정도	41
[표Ⅳ-7] 동반자 수해 청소년에 대한 부모상담 필요성	41
[표Ⅳ-8] 동반자 수해 청소년에 대한 부모관심의 정도	41
[표Ⅳ-9]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학대 경험 여부	42
[표Ⅳ-10]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학대 경험(중복체크)	42
[표Ⅳ-11] 4가지 문제영역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43
[표Ⅳ-12] 청소년동반자 내담자의 4가지 문제영역에 대한 잠재계층 모형 검증	44
[표Ⅳ-13] 각 계층별 조건 반응 확률	44
[표Ⅳ-14] 상담요구문항 요인분석 결과	46
[표Ⅳ-15] 상담요구요인에 대한 계층별 평균 차이 검증(t-test)	48
[표Ⅳ-16] 리질리언스에 대한 계층별 평균 차이 검증(t-test)	48
[표Ⅳ-17] 부모상담에 대한 계층별 평균 차이 검증(t-test)	49
[표Ⅳ-18] 1순위 호소문제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결과	50

CONTENTS

[표Ⅳ-19] 2순위 호소문제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결과	50
[표Ⅳ-20] 상담하면서 재미있었던 경험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	51
[표Ⅳ-21] 상담 권유 의사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	51
[표Ⅳ-22]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3
[표Ⅳ-23]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	54
[표Ⅳ-24]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	54

Ⅰ 그림목차

[그림Ⅱ-1] 청소년동반자 성별 비교	7
[그림Ⅱ-2] 청소년동반자 연령	7
[그림Ⅱ-3]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근무기간 비교	8
[그림Ⅱ-4]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근무기간 비교	8
[그림Ⅱ-5] 청소년동반자 학력 비교	8
[그림Ⅱ-6] 청소년동반자 전공 비교	9
[그림Ⅱ-7] 청소년동반자 보유 자격증 비교	9
[그림Ⅱ-8] 대상청소년 학업상태 비교	12
[그림Ⅱ-9] 대상청소년 가족사항 비교	12
[그림Ⅱ-10] 대상청소년 가족형태 비교	13
[그림Ⅱ-11] 대상청소년 경제적 수준 비교	13
[그림Ⅱ-12] 대상청소년 이전 상담 경험 비교	14
[그림Ⅱ-13] 대상청소년 문제유형 비교	14
[그림Ⅱ-14] 청소년동반자 개입의 과정	25
[그림Ⅳ-1] 청소년동반자 상담 종합실적 비교	36
[그림Ⅳ-2] 청소년동반자 회기보고 실적 비교	37
[그림Ⅳ-3] 청소년동반자 상담 장소 비교	38
[그림Ⅳ-4] 합의종결 유형 비교	38
[그림Ⅳ-5] 조기종결 유형 비교	38
[그림Ⅴ-1] MST 분석과정(MST Analytic Process)	61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05년 청소년동반자 사업 출범 이후,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의 위기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상담 개입을 해오고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기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전문가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내면을 통찰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도 약한 경향이 있어 상담 장면에서 비자발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와 지원체계는 실제 수요자인 청소년과 단절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청소년동반자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한 층 더 접근이 용이하고 다수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0)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중에서 고위험군청소년은 8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출, 학교폭력, 학업중단, 자살 등 위기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찾아가는 심리상담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동반자는 한 해 동안 총 31,190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주요 문제유형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정신건강, 비행, 학교부적응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그런데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2008)의 연구에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된 고위기 청소년들은 최소한 1개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위기원인이라 볼 수 있는 잠재위기로인도 중복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발달적, 환경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중복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위기 상황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높아서(구본용 외, 2005), 청소년동반자가 만나는 대상 청소년들이 어느 한 문제영역에서 문제를 호소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문제영역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에 의뢰되는 청소년들은 한 가지 문제만으로 상담에 의뢰된다기 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이렇게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이 다양화 된 데에는 청소년 정책 환경의 영향도 큰데, 2011년도에는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와 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동반자에게 보호관찰청소년을 적극 연계하도록 하여 비행, 일탈 등 촉법 청소년이 주요 서비스 대상의 한 축이 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청소년동반자는 많은 학교폭력 가·피해청소년을 상담하게 되었다. 더불어 2012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전국 각 급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선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 심리정서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청소년동반자가 상담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동반자는 정책적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주요 해결책으로서 제시되면서 다양한 문제유형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왔다. 그러므로 이들을 만나는 청소년동반자는 어느 특정 문제 영역에서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전방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2005년 301명으로 시작한 청소년동반자는 2014년 현재 전국 1천명에 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경력, 관련 자격증, 전공, 학력 등은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경력에 있어서는 1년 미만에서 4년 이상의 분포를 보였고, 2년 미만의 동반자의 수가 전체의 69.3%로 나타났다. 보유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정교사2급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순으로 분포하고, 전공은 상담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학으로 구분되었으며 기타 전공도 10%를 차지했다. 학력 또한 초대졸에서 박사수로 이상의 넓은 분포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황은 청소년동반자의 배경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력이 짧은 초심 상담자에게서 자격증, 학력, 전공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례평가, 개입목표, 개입방법,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각각의 배경에 따라 개입이 다를 수 있어 청소년동반자가 가진 다양한 배경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간 이루어진 청소년동반자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개발(오경자, 이기학, 배주미, 2005; 이대형, 노성덕, 2011), 청소년동반자 위기 수준 및 유형에 따른 사례관리 모형연구(배주미, 2008), 청소년동반자의 효과성 관련 연구(송원영, 송미경, 노성덕, 이대형, 김호정, 박선경, 김현진, 2011)등이 이뤄졌으며,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례 별 전반적인 흐름도를 제시하여 청소년동반자의 표준화된 서비스 체계에 보다 더 초점

을 두고 있으며 현장 청소년들의 문제경향과 요구에 부합하는 상담 개입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동반자의 상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유형별로 기본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은샘, 고은영, 2009). 청소년 문제유형을 분류하는 전략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양상을 고려함으로써 전문가간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상담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문제를 분류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김창대, 이명우, 1995). 또한 추후 청소년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 통일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Blashfield & Draguns, 1976; Johnson, 1984; Quay & Werry, 1986).

이와 관련하여 양미진, 이자영, 손재환(2010)은 위기청소년 문제유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잠재계층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5개의 청소년 위גיע층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계층에 속한 문제 패턴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에서는 여러 패턴으로 나타나는 문제유형들을 각 계층으로 구분하고 계층별 문제 형태와 지원 개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김형수, 최한나(2009)는 여러 청소년 위기결과들을 살펴보고 이를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을 사용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렇게 위기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위기청소년들의 문제 상황을 유목화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들이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유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유형들이 특정 계층으로 분류가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동반자 사례에서 분류하고 있는 4가지 문제유형(개인, 가정, 학교·또래, 지역사회)이 특정 문제 계층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각 계층별 문제 양상을 분석 할 것이다. 4가지 문제유형을 계층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은 특정 한 가지 문제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중복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잠재계층분석은 각 문제유형들의 출현 패턴들을 조합하여 이를 계층으로 분류함으로써 여러 문제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상담 개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유형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청소년동반자에게 배정되는 문제유형의 계층을 유목화하고 각 계층의 요구에 맞는 상담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별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 갖는 상담효과와 필요한 상담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사례를 분석 할 것이다. 이는 문제유형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이라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청소년동반자 실제현장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상담요구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본 연구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계층으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담 개입방안을 마련하고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개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담자가 하나의 호소 문제를 가지고 상담실을 찾거나 의뢰되었지만 그 이면에 다른 문제들이 함께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대상자의 특성과 문제상황을 좀 더 빠르게 연결시킬 수 있는 예방적 단서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문제경향, 위기도, 환경요인 등을 분석하고,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다양한 문제유형의 패턴들을 분류하고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 및 대상 청소년의 요구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의 핵심 요소 및 원리를 도출하고,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 운영모형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운영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청소년동반자의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에 대한 계층을 파악하고자 한다.
 - 2-1.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 계층을 분류한다.
 - 2-2.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 계층별 특성을 분석한다.
 - 2-3.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 계층별 상담요구를 분석한다.
3. 청소년동반자 대상 질적연구를 통해서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 3-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3-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다.
 - 3-3.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운영현황 및 특성

통계청(2012)이 발표한 ‘2012 청소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중, 고등학생의 10.2%가 가출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절도, 폭행, 성매매 등 범죄 및 비행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의 발생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위기 청소년의 현황을 분석한 또 다른 자료에서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고위기 청소년은 41만 8천명, 중위기 청소년은 125만 8천명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윤진선, 2005).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이탈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청소년동반자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청소년동반자의 운영지역은 16개 시도 76개 지역에서 2014년 현재 17개 시도 226개 지역으로 증가했으며 청소년동반자의 수혜대상도 2008년 12,320명에서 2012년 31,226명, 2013년 31,19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그리고 2014년 수혜청소년 목표인원은 27,744명이나 실제 목표인원보다 많은 청소년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러한 예측은 동시에 위기개입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동반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청소년동반자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전국 총 22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확대와 더불어 CYS-Net의 중추 사업인 청소년동반자 예산 또한 매년 증액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목표인원은 각 지역별로 청소년동반자 배치인원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 매년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혜청소년 목표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동반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아래서도 수혜목표인원 대비 실제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의 수 또한 매년 초과 달성되고 있다.

[표 II-1] 수해청소년년 목표 인원 및 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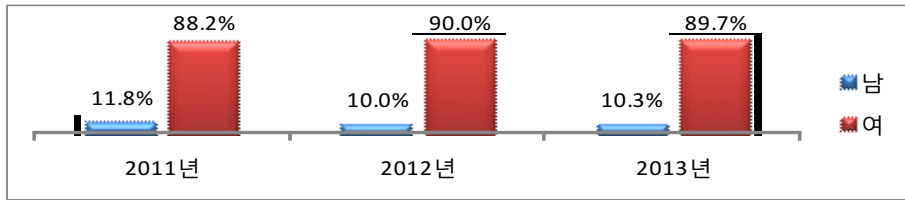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본예산	추 경				
서울	1,770	1,770	1,380	2,880	3,600	4,032	4,032
부산	690	710	288	1,656	1,728	2,112	2,112
대구	480	480	576	624	1,152	1,248	1,248
인천	710	710	264	720	1,008	1,128	1,128
광주	620	620	60	816	816	960	960
대전	670	665	120	792	792	1,176	1,176
울산	350	415	156	696	696	792	792
세종	-	-	-	-	-	-	144
경기	2,625	2,625	1,344	4,680	5,496	5,928	5,928
강원	500	500	180	960	960	1,176	1,176
충북	415	415	444	816	816	888	888
충남	460	460	336	936	936	1,056	1,056
전북	580	580	624	816	816	864	864
전남	330	330	288	576	864	1,032	1,032
경북	250	250	528	1,176	1,176	1,368	1,368
경남	1,750	1,750	300	3,456	2,760	2,976	2,976
제주	120	140	312	384	384	384	384
목표합계	12,200	12,280	6,888	21,600	23,616	26,736	27,264
달성실적	14,510	16,502	8,013	25,675	26,324	31,226	31,190
달성비율	117.9	132.9	111.3	116.8	109.7	115.1	114.4

※ 수해청소년 수 : 2005년 1,592명, 2006년 3,576명, 2007년 4,566명

※ 연간 목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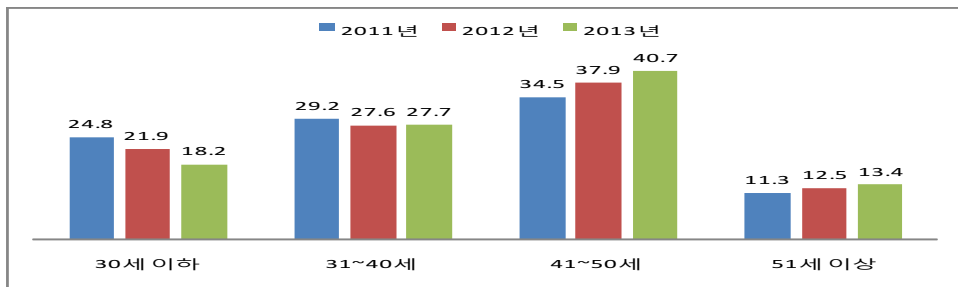
- 2008년 : 전일제 45사례, 시간제 20사례
- 2009년 본예산 : 2008년 대비 5% 증가
- 2009년 추경예산 : 시간제 동반자 1인당 12사례(분기별 6사례×2분기)
- 2010~2012년 : 전일제 48사례, 시간제 24사례

청소년동반자 성별을 살펴보면, 2013년에 활동한 청소년동반자의 89.7%가 여성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2013년 10.3%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세분해보면 2013년 전체 인원 대비 남성의 비율은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15.5%,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8.8%로 전일제 청소년동반자가 시간제 청소년동반자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위기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면 밤낮을 불구하고 현장으로 진출해 상담과 연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남자청소년 청소년동반자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림 II-1] 청소년동반자 성별 비교

청소년동반자 연령을 살펴보면, 매년 41~50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 대비 51세 이상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세 이하 청소년 동반자의 비율은 2012년 21.9%에서 2013년 18.2%로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1세 이상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인 55세 이상의 청소년동반자는 2013년의 경우 5.0%(50명)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의 연령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일제 청소년동반자는 매년 31~40세의 비율이,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는 매년 41~50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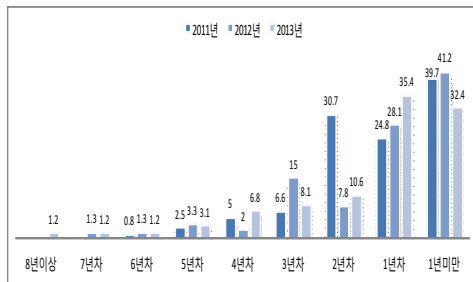


[그림 II-2] 청소년동반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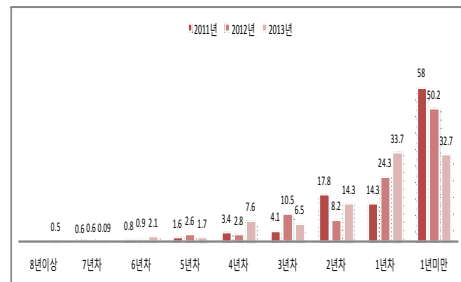
전일제 청소년동반자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 근무자의 비율은 2012년 41.2%에서 2013년 32.4%로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2012년 28.1%에서 2013년 35.4%로 7.3% 증가하였으며,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도 2012년 7.8%에서 2013년 10.6%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근무자는 2012년 15.0%에서 2013년 8.1%로 6.9% 감소하였으나, 4년 이상 근무자는 2012년 2.0%에서 2013년 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2012년 3.3%에서 2013년 3.1%로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의 근무경력에 있어서는, 시간제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의 비율이 2012년 50.2%에서 2013년 32.7%로 17.5%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2012년 24.3%에서 2013년 33.7%로 9.4% 증가하였으며, 2년 이상의 경우 2012년 8.2%에서 2013년 14.3%로 6.1% 증가하였으나, 3년 이상은 2012년 10.5%에서 2013년 6.5%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이상은 2012년 2.8%에서 2013년 7.6%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 이상은 2.6%에서 2013년 1.7%로 0.9%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시책에 따라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어, 주로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연례적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전문 상담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보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을 갓 졸업한 젊은 세대의 유입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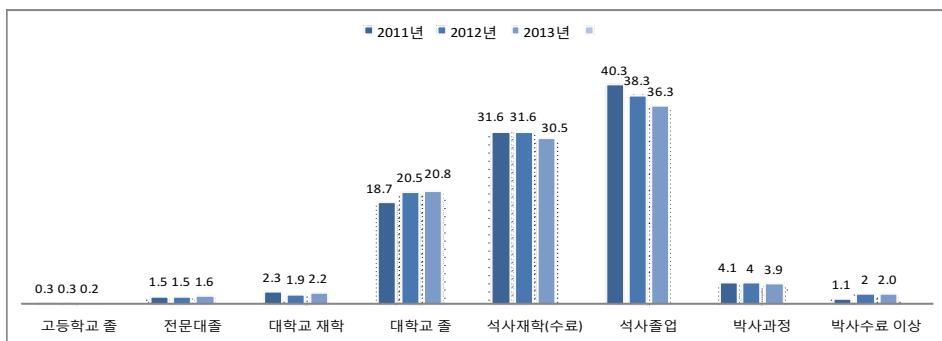


[그림 II-3]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근무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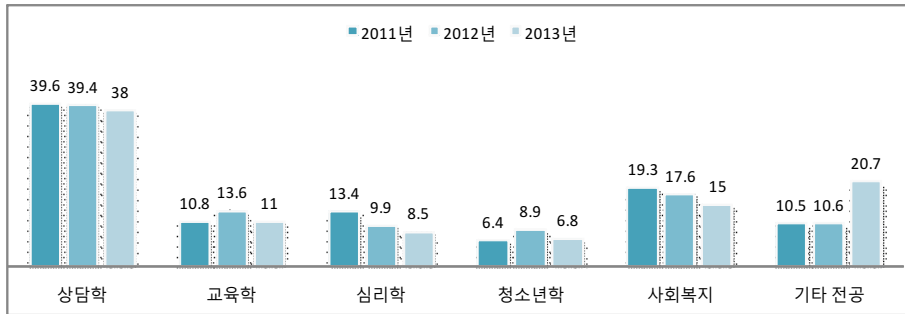
[그림 II-4]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근무기간 비교

청소년동반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석사과정을 졸업한 청소년동반자의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고, 박사과정 이상은 5.9%로 2012년 6.0%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동반자가 2010년 39.2%, 2011년 45.5%, 2012년 44.3%, 2013년 4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학력이 석사이상으로써 청소년동반자들의 업무 영역이 전문영역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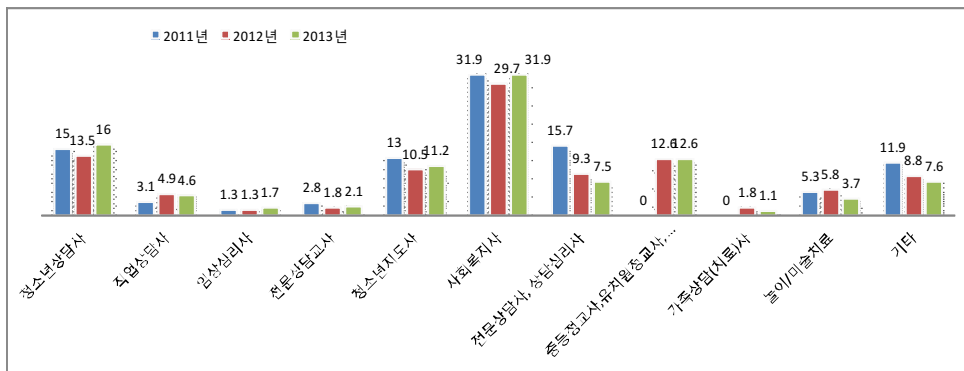
[그림 II-5] 청소년동반자 학력 비교

청소년동반자의 전공별로 살펴보면, 상담학 전공의 비율이 38.0%로 2012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순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복지학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전체 대비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전공으로는 아동가족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신학, 간호학 등이 있었다.



[그림 II-6] 청소년동반자 전공 비교

청소년동반자의 보유 자격증을 다중응답(2개)을 통해 확인 한 결과,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31.9%로 2012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상담사, 중등정교사/유치원정교사/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전문상담사/상담심리사, 기타, 놀이/미술치료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격으로는 가정폭력상담사, 성폭력상담사,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평생교육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상담 영역이라는 전문영역에 필요토록 구조화 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보유가 권장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분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II-7] 청소년동반자 보유 자격증 비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청소년동반자는 위기청소년들을 사회안전망 내로 연결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미국의 다중체계치료를 모델로 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다중체계적 관점이다. 위기청소년의 행동상 문제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상 청소년과 그를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한다. 둘째,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이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입을 진행하여 기존의 상담진행에 비해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찾아가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상담 서비스와 가장 큰 외형적 차이점으로 볼 수 있으며 낮은 동기나 거리상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현장 중심의 직접적 개입이다.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과는 달리 개인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유도한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섯째, 개입 효과의 지속적 평가를 통한 개입 전략의 정교화이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서는 단기간동안의 개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 개입 목표의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개입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특성 하에서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는 위기청소년의 발견, 문제유형의 평가, 상담 개입, 사후 관리의 네 단계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청소년동반자는 CYS-Net 사업의 핵심요소로서, 청소년 상담분야에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다. 위기청소년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연계하며, 위기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이 속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찾아가서 직접 조사하고, 이들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여, 각 영역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함으로써 보호요인은 강화시키고 위험요인은 감소시킴으로써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내의 여러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이들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이를 통하여 이들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청소년동반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2.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특성 및 유형

가.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현황

위기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청소년들은 정규 학업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교육 수준으로 사회에 진입하게된다. 이는 실업률 증가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의 부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지원 등의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CYS-Net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실적들을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 청소년동반자들이 다룬 대상청소년들의 현황을 2013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기도

위기 스크리닝에서의 위험군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위기도를 살펴보면 저위험군 47.8%, 중위험군 18.8%, 고위험군 33.4%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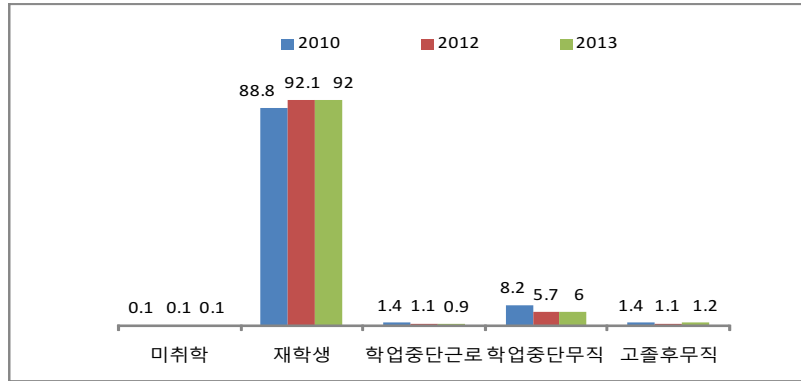
[표 II-2] 대상청소년 위험군 분포

구 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계
2011년	인원(명)	11,199	4,975	10,150	26,324
	비율(%)	42.5	18.9	38.6	100.0
2012년	인원(명)	14,224	5,805	11,197	31,226
	비율(%)	45.5	18.6	35.9	100.0
2013년	인원(명)	14,911	5,849	10,430	31,190
	비율(%)	47.8	18.8	33.4	100.0

2) 학업상태

청소년의 개인상담 신청서에 의한 사례등록에서 청소년의 교육 상태는 중학교 재학이 4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재학이 26.5%, 초등학교 재학이 22.9%의 순으로 나타나 2012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개인상담 신청서 작성 당시의 현재 상태는 학교나 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90.4%로 나타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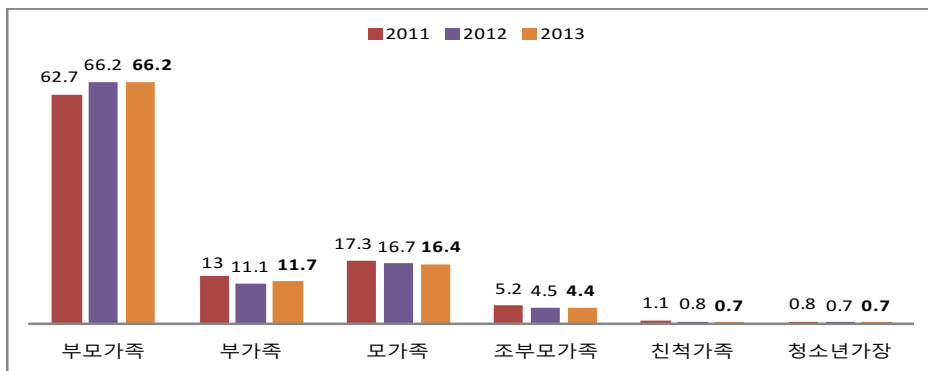
등교거부, 징계상태, 가출 등의 부적응 상황에 놓인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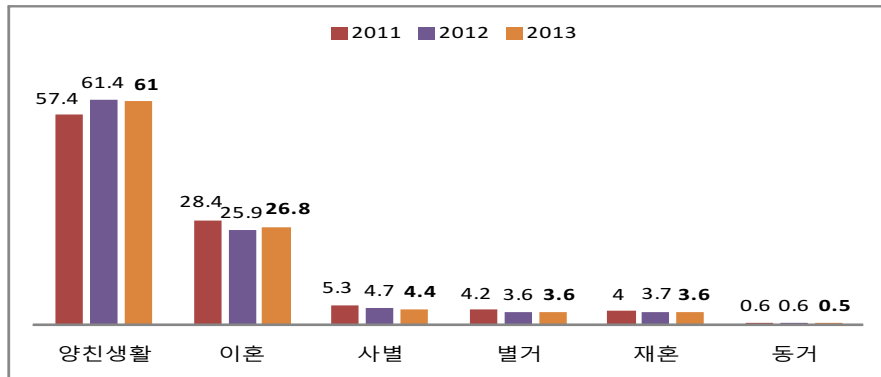
[그림 II-8] 대상청소년 학업상태 비교

3) 가족사항 및 가족형태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66.2%가 부모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 부모 가족 또는 조부모, 친척, 청소년 가장 등이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이 61.0%로 가장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이혼, 사별, 별거, 재혼, 동거 등과 같은 가족의 형태가 3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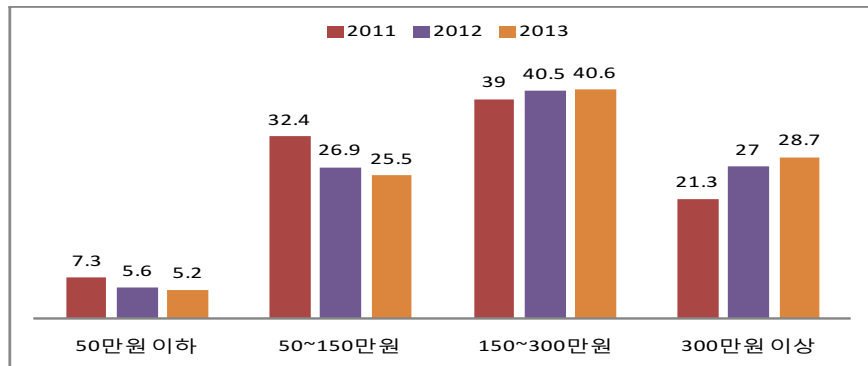
[그림 II-9] 대상청소년 가족사항 비교



[그림 II-10] 대상청소년 가족형태 비교

4) 경제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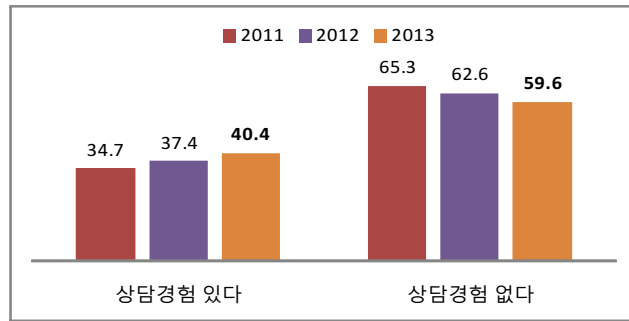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경제적 수준은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4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0만원 이상이 28.7%,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2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 대상청소년 경제적 수준 비교

5) 이전상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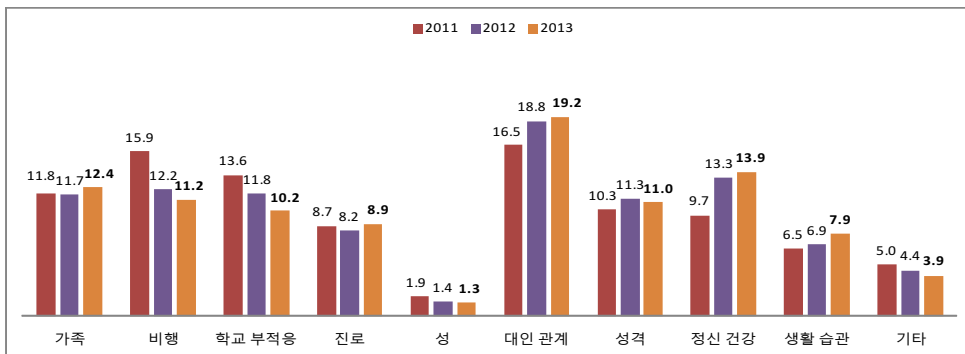
청소년동반자로부터 상담을 받기 이전에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40.4%의 청소년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상담 경험 유무 비율은 큰 변화는 없었지만, 상담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그림 II-12] 대상청소년 이전 상담 경험 비교

6) 호소문제 유형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문제유형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13.9%,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12.4%, 비행과 관련된 문제가 11.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주 고민에 대한 내용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 상태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이 1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업중단이 11.0%, 가정폭력피해가 10.2%, 보호관찰과 학교폭력피해가 9.6%, 학교폭력가해 및 학교폭력기타가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아 청소년동반자가 접하는 청소년 중 40%가량이 이전에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고, 그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 정신건강, 성격, 가족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3] 대상청소년 문제유형 비교

나.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위기 특성

위기는 연속선상에 있는 발달적·단계적 개념으로 ‘현재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때 미래에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는 9세에서 24세의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생애 발달단계 중 가장 크다고 알려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혹은 그 나이 또래의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다.

McWhirter 등(2004)은 위기를 5단계로 분류하였다. 1단계 최저위기는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학교나 가족적 환경, 사회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적·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2단계 저위기는 최저 위기에 비해 약간은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약간은 부족한 가정, 학교, 사회관계를 갖고 있으며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상태이다. 3단계 고위기는 부정적인 가족, 학교, 사회관계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며,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 기술 부족 등 개인적 위기징후로 발전되는 단계이다. 4단계 위기행동입문은 청소년이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5단계 위기행동이란 입문수준의 행동에서 다른 범주의 위기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약물남용, 학업중단, 위험한 성행동, 비행, 총기사용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윤철경, 2005, 재인용).

영국의 커넥션즈 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고 중간 단계 이상을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낮은 단계는 일반적으로 별문제가 없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하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정도의 청소년 그룹이다. 이들은 학업과 진로상담 중심의 지도가 필요하다. 중간 단계는 복합적 위기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위기청소년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인기로 넘어 갈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높은 단계는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는 청소년 집단을 의미하며 이들은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윤철경 외,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구분용(2005)의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을 일련의 개인, 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행동적·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즉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 고위험 청소년

년들을 위기청소년으로 보았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정의는 위기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정도가 더해가거나 약화되는 연속선상의 단계들로 보고 4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위기전조단계는 가족, 이웃, 학교, 사회적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단계로 일관성 없는 양육방식, 학업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 빈곤, 유해매체의 폭력성에 노출되는 환경에 속해 있는 단계이다. 그로부터 정상적 발달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는 위기표식단계로서 상황적 위기 및 발달적 위기를 포함한다.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혹은 사망, 학대 및 방임, 따돌림 등의 내용이 속한다. 세 번째 단계는 부정적 단기결과를 생성하는 문제행동 단계이다. 이때는 무단결석, 학교폭력 가해, 낮은 학업성취, 교사에게 도전, 자살 시도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낸다. 마지막 단계는 위기결과 단계로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장기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데 학업중단, 가출, 범죄, 자살 등이 있다.

위에서 소개한 위기청소년 및 위기수준 분류에 대한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는 단절되거나 하나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연속적인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위기수준은 개인내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발달한다. 청소년들이 발달적, 환경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중복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위기 상황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높다(구본용 외, 2005)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문제가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여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재 문제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위기수준이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상담개입에 있어 예방적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위기가 심화되는 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그러한 요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개인영역과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 볼 것인데 환경요인은 가정, 학교 및 또래, 지역사회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개인요인

위agy인 중 개인요인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맞물려 여러 가지 심리적 변수가 작용하여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비행, 우울 및 불안장애, 음주, 학업중단 등의 선행연구를 개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Heaven과 Virgen(2001)은 13세 남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성

격요인(외향성, 신경증, 정신증), 가족통제(부모의 유도, 처벌, 사랑, 철회) 및 이성교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격과 이성 교제는 비행에 일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品行장애와 관련해서는 책임감 회피, 도덕적 정서 및 귀인, 위협 요인, 가족의 심리적 변인과 치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Powell과 Rosen(1999)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品行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책임감 회피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品行장애 청소년들은品行장애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책임감 회피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통제 반응에 대해 보다 외부귀인을 많이 하여 책임감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분노조절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쉽게 폭력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지민, 1998). 유성경 등(2000)의 연구에서도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에게서 낮은 충동자제력과 반항적인 성향 등이 문제상황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청소년 가출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 사이에도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가출의 시기도 빨라지고 있어서 우려된다(남영옥, 2001). 가출의 원인으로는 부모의 이혼, 방임, 가족 간의 갈등 등의 이유로 가정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정경은, 2008).

청소년기 우울증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이후의 사회적 문제나 장애와 인지적 발달의 손상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으나(Kandel & Davis, 1986), 이것이 초기 우울증의 결과인지 혹은 원인인지는 확실치 않다. 우울한 아동 및 청소년은 심리사회적인 와해가 초래된다. 우울증 삽화가 나타나는 동안, 우울증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업수행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상을 나타낸다(Hammen, 1990). 장기종단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사회적인 와해가 이 장애의 휴유증일 수도 있고 전조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안장애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정신장애 가운데 가장 흔한 장애로 널리 알려져 있다. Strauss, Frame 및 Forhand(1987)의 연구결과 아동기의 불안은 학업수행이나 사회적 기능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oodward와 Fergusson(2001)은 불안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사회적 역할에 대한 위험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연속적으로 불안, 우울의 위험이 증가하고 불법적 약물 의존, 초기 성인으로서의 교육적 하위성취의 위험이 증가함을 보였다. Giaconia, Reinherz, Silverman, Pakiz, Frost 및 Cohen(1995)의 일반사회에서 청소년기 후기 사람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과 심리 사회적 기능 손상을 연구한 결과, 적어도 25%가 외상을 경험

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나타내는 청소년은 행동-정서 문제, 대인관계 문제, 학업 실패, 자살 행동, 건강 문제 등 전반적으로 폭넓은 손상을 보였으며 다른 장애를 가질 위험도 더 높았다.

청소년의 음주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음주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어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물질 사용을 경험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은 90%이상이 음주경험을, 2/3 이상이 흡연을 그리고 약 반 이상이 마리화나를 경험한다(Robinson, Klesges, Zbikowski, & Glaser, 1997).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 연구들은 대개 물질 사용의 빈도와 시작 시기, 다른 일탈행동과의 관련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운수, 이혜리, 강윤주(1998)는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빈도 및 시작시기, 그리고 각 약물사용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술, 담배, 각성제, 수면제, 흡입제의 순이었으며 인문계 고교보다 전문계 고교에서 약물사용의 빈도가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약물사용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흡연 및 음주 행위는 다른 약물의 사용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청소년의 위기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이 높는데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구자경, 홍지영, 장유진(2001)에 의하면 중, 고등학생의 54%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상태도 학업중단의 맥락에서 주목해야 한다(이숙영, 남상인, 1997; 허철수, 고강호, 고기홍, 이춘옥, 송미경, 1998).

요약하면 위기청소년의 개인요인으로 비행, 품행장애, 충동성, 우울, 불안, 음주, 흡연, 학업중단, 외상 후 스트레스, 가출 등을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에서 학업 등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울이나 불안 등 일부 개인요인들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위기청소년의 가정요인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방식 등과 같은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성격 및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성격, 정서, 사회성 등이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고, 이를 기초로 또래관계,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교생활 등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아가기 때문이다(최성순, 2001). 청소년의 위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요인으로 구분용 등(2005)은 빈곤, 양육방식, 낮은 학업성취 기대, 가족 간 불화, 학대, 부모이혼 및 사망 등을 류진아(2007)는 빈곤이나 가정폭력, 가출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적인 문제는 위기청소년이 보이는 문제의 사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속·심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Wilson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을 언급하면서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결손 등의 구조적 측면과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 태도 등의 기능적 측면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김동일 외, 2009). 가족구조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결손가정은 부부의 일방 또는 양방의 사망, 별거, 유기, 이혼, 실종 등에 의해 가정의 기능이 약화된 형태로서 가족관련 문제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결손가정은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문제보다는 가족구성원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오는 자녀의 교육기능 약화와 더불어 물질적인 관련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손가정의 유해한 조건에서 자녀들은 욕구불만, 심리적 고독감, 애정 결여 등의 문제를 갖기 쉬우며, 이것은 곧 가출 또는 비행을 유발하기 쉽다(김상규, 전택일, 1992). 경제적 빈곤은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빈곤생활에서 면할 수 없는 양친의 무기력, 무능력, 음주벽, 또는 생활의 무질서 등 빈곤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으로 인하여 범죄 등의 문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표갑수, 1994). 청소년의 위기유형을 탐색한 김형수 등(2009)의 연구에서는 빈곤,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폭력, 시설입소와 같은 물리적 측면이 위기청소년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양육태도 또한 청소년의 중요한 가정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양육방식 중 통제적인 방식과 허용적 방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이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반면, 두려움이 많고 끈기가 부족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변영주, 1995).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은 자기표현을 잘 하고 진취적인 성향이 있지만, 책임감이 없고 주의집중이 부족하며 자기신뢰나 자기통제의 수준이 낮은 것이 그 특징이다(이경리, 1998). Loeber와 Loeber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종합하여 부모 감독의 부재, 부모의 거부, 부모-자녀간의 관계 등이 가장 강력한 가정 관련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비행에서 가족의 역할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다루었던 Hirschi는 부모와의 애착이 결여되었을 때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김동일 외, 2009). 이와 유사하게 김명자(2002)에 의하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서 문제행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가정의 형태와 경제적 문제, 중퇴를 경험한 가족구성원의 존재, 부모의 음주나 폭력, 잦은 이사,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경험, 부모의 교육 지원과 기대가 청소년의 위기와 관련한 가족 관련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 경험의 지속적 제공은 한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위기청소년의 학교 및 또래요인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터전으로서, 교과과정, 동아리활동, 학급생활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술을 터득한다(김기하, 1997). 학교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에는 학교의 심리적 환경이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2002). 이러한 요인에는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학업이나 친구관계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은 곧 학교생활 전반에 지장을 가져오는 학교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취도는 높은 반면, 비행문제는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Arnett, 2000). 또한 유성경, 안희정, 이소래, 오익수(1999)는 학교성적 하락, 학교교육에 대한 낮은 흥미, 학교생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교사들의 무관심이나 폭력, 문제행동을 가진 친구와의 접촉 등이 청소년의 위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교만족도가 낮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학업에 대한 흥미나 학업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위기 결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Jang은 학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비행과 폭력행동에 더 많이 관련된다고 하였다(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에서 재인용).

한편,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가족관계 만큼이나 중요하다. 위기청소년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 상황을 밝혀낸 류진아(2007)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또래관계, 집단 따돌림, 규율위반(지각, 결석, 수업태도 등), 복학에 따른 문제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친구는 정서적·사회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의 문제는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비행 등의 문제행동 발생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친구가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보다도 크다. 즉, 학교의 출석률, 숙제 등 공부 시간, 성적 등은 부모보다 친구들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Arnett, 2000). 이승훈(1996)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어울림은 비행 방법과 기술, 태도 및 합리화를 배우게 되고, 이들에 의해 비행의 기회가 주어지며, 더불어서 저지른 비행에 대한 강화가 주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래관계 측면에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일탈적인 또래와의 어울림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폭력의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영식(1998)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친구의 비행, 학교폭력 피해정도, 학교생활 충실도, 충동적 행동, 장래에 대한 희망, 폭력매체 접촉과 선호도, 가정 관련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친구의 비행 정도는 학교폭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종합하면, 학교 및 또래요인도 청소년의 위기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업의 전반적 생활,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등에서 부적응을 보일 경우 위기정도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위기청소년의 지역사회요인

사회 환경망이란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사회 환경을 뜻하며, 청소년 행위의 특성과 정도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사회 환경망 요인에는 앞서 살펴본 학교 및 또래집단 그리고 지역사회가 포함된다. 가정과 학교가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제휴와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이동근, 2003). 또한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구체적인 생활의 원천적 거점이므로 청소년의 사회화에 기여하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는데 필요한 좋은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성인들의 의식감소나 빈부격차, 지역사회 해체 등으로 인해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청소년 문제행동을 조장하거나 그 원인으로 기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빈곤, 지역사회 친밀도 및 조직화 정도, 지

역사회의 규범, 약물이나 마약복용의 가용성 등은 청소년 문제 행동과 직접 관련되고 있어 위기청소년을 조장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안귀여루 외, 2008). 특히, 빈곤지역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일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역은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사회규범의 약화 등으로 범죄율이 높고, 문제행동의 발생빈도가 높다(김순규, 2006). 지역사회의 기능 저하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역할모델의 결핍과 부정적 역할모델의 과잉 제공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기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Lewitt & Selman, 1996).

이러한 맥락으로 보아, 지역사회 단위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이 처한 문제는 청소년의 심리내적인 요인과 가정요인, 학교 및 또래요인, 그리고 지역사회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이며 위기 상황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다.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 유형분류 관련 선행연구

청소년동반자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개인적, 환경적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기상황에 처하게 하는 요인들이 다양함을 의미하고 청소년동반자의 개입 방향으로 그러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감소시켜야 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봉주 외(2008)의 연구에서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영역모두에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4%,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영역 모두에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2%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발달적, 환경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중복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위기 상황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높는데(구본용 외, 2005),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에 의뢰되는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나 특성들이 함께 공존하여 나타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위기를 단일하게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또한 그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개입 방법을 설정하게끔 도와 줄 수 있다.

양미진, 이자영, 손재환(2010)의 연구에 의하면 위기요인 취약성 범주에 대한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하여 5개 계층을 확인하였다. 계층1은 대인관계 위기가 두드러졌고, 계층2는 모든 위기요인에 취약해 고위험 계층으로 간주 되었다. 계층3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일탈 중심 위기가 두드러졌으며 계층4는 부모갈등 위기가 두드러졌고, 마지막 계층5는 취약한 위기요인이 거의 없는 저 위험 계층으로 간주되었다. 이들 5계층의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특성에서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어 각 계층의 위기수준과 그 성격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김형수, 최한나(2009)의 연구에서는 위기요인들의 발생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차원적도분석을 실시한 후 도출된 좌표에 위치한 개별 위기요인들의 좌표 값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기요인들에 대한 근접성을 확인하고 유형화한 결과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비행관련요인과 비행 무관련 요인으로 크게 나뉘지며 이에 따라 6가지 위기유형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위 두 연구에서는 위기결과 혹은 위기결과와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들(예: 한부모가정)을 함께 분석을 하였는데, 이러한 위기청소년관련 유형분류는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가지고 상담장면에 찾아오는 위기청소년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에서는 이미 나타난 결과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으나 청소년의 행동 이면의 심리적 기제나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가출흡연 등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지만 개인영역과 가정영역에서 특히 더 취약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가정영역, 또래 및 학교영역에서 취약함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입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봉주 외(2008)는 잠재위험요인과 발현위험요인으로 구분하여 잠재위험요인을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으로, 발현위험요인을 잠재된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부정적 문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잠재위험요인들의 중복률, 발현위험요인들의 중복률, 잠재위험과 발현위험요인들의 중복률 등을 파악하여 위기청소년의 상황과 위기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제시한 결과는 위험요인들의 중복률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하여 단편적인 청소년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중복된 특성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상담개입을 할 때에는 개인들의 특성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상담자가 청소년들이 취약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위기요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둔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결과를 유발시키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이 나타내는 문제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청소년동반자 상담 관련 선행연구

가. 청소년동반자 상담 개입과정 선행연구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전문성이라 함은 청소년과 지지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해당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위기청소년들의 내적이고 개인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개인상담 및 여타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동반자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시스템의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그것의 변화를 중요시한다. 또한 개입과정에서 환경 내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청소년들을 돕는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동반자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오경자, 이기학, 배주미, 2006b; 오경자, 2007; 백진영, 2008)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일반 상담에 비해 더 잦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동반자가 실제 사례에 대하여 개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입 전 단계로서 1~3단계, 개입과정을 4~6단계, 종결 및 추후관리 과정을 7~8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림 II-14] 청소년동반자 개입의 과정

개입 전 : 담당 동반자가 사례를 배정받으면 사례에 대한 평가, 목표설정, 개입전략을 세우고 개입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청소년동반자는 의뢰기록을 숙지하고 대상 청소년에 대한 파악을 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 문제에 대한 가설을 미리 세워보고 어떠한 정보를 더 얻어야 하는지 준비할 수 있다. 사례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개입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성과를 얻는 기초를 놓는 작업이므로 대상자의 사전정보에 대한 탐색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첫 만남에서 청소년동반자는 대상 청소년과 또 가족이나 주변의 중요 체계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은 거의 비자발적으로 의뢰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상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경우 개인도 위기이지만 주변 환경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을 들

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체계 내의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개입과정 : 개입과정에서 청소년동반자는 가장 적절한 개입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전략 및 목표를 수정·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가장 활용 가능한 보호요인과 가장 시급하게 감소시켜야 할 위험요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이를 근거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목표에는 달성목표와 세부목표가 있는데, 달성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세부목표는 달성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들이며, 이 목표들을 위한 각 영역별 개입전략을 세워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평가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개입 목표가 적절하였는가’이다. 두 번째는 ‘개입 전략이 적절하였는가’이다.

종결 : 일반적으로 초기에 계획하였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종결을 준비하게 된다. 서비스 계획이 적절히 수행되고 청소년과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하는 경우라면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종결하게 된다. 청소년을 비롯한 각 체계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서 힘을 얻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 이후의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고 추수활동을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나. 청소년동반자 상담 성과관련 선행연구

성공적 상담이란 상담성도가 나타나는 상담을 말한다. 성공적 상담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상담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담에서 성과란 상담 및 심리치료의 결과로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를 가리킨다(Hill & Williams, 2000). 이 때 발생하는 변화는 상담자의 이론적 관점이나 내담자의 증상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반자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성과를 일괄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상 청소년의 증상이 나아진 정도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상담성도를 정의해 볼 수 있겠다. 그동안 상담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상담자 변인, 내담자 변인, 상담자-내담자 관계변인, 상담과정 변인, 상담변인이 있다. 최근의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을 변인으로 하여 상담과정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나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이다(김수현, 1998, 1991; 홍경화, 1991). 상담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애착, 상담기대, 전이, 애착, 상담자 자기개방, 역전이(윤희섭, 정현희, 2012; 김수연, 장재홍, 2011; 김원빈, 2010)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특성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상담효율성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도움 된 경험은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상담성과로 내담자가 상담 받고자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험을 말한다. Elliot(1985)은 새로운 시각, 문제 해결, 문제의 명료화, 깨달음에 초점을 두는 것, 자기이해, 내담자 몰입, 정서적 안심, 개인 접촉으로 도움 된 사건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Elliot과 James(1989)는 상담에서 내담자들의 도움 된 경험으로 촉진적인 치료자 특성, 지지적인 관계 경험, 내담자 자기 표현 허용, 자기 이해(통찰), 치료 밖 상황의 연습을 격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인관계 변화, 감정 표출 그리고 자신감 획득, 자기이해, 자기 수용, 통찰, 대인관계 인식 변화 등이 주요 부분이었다. Goldfried는 여러 변화이론을 통합하여 내담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5개 요인을 제안하였다. 5개 요인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 내담자의 사고와 감정을 연결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교정적 정서 체험 격려하기, 지속적인 현실 검증 공급, 좋은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이다(Cummings, Selmon & Hallberg, 1994). 또한 Paulson, Truscott와 Stuart(1999)는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분류하고 개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담에서 도움이 되는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의 촉진적 대인관계 양식, 상담자의 개입, 내담자의 자원 생성, 새로운 조망, 정서적 위안, 내담자의 자기 개방, 지식획득, 접근성, 내담자의 문제 해결이라는 9개의 범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도움 된 경험이 상담성과와 관련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신재호, 정남운(2007)의 연구에 따르면 도움 된 경험에 영향을 준 상담자 요인은 공감, 편안한 분위기 유도, 새로운 시각제시, 상담자의 보편화, 자기개방, 지지, 개인적 노력 등이 있었고 내담자 요인은 솔직한 자기 개방, 적극적 태도, 실생활과 상담 연계, 자기 성찰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상담성과가 낮은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경인, 한영주, 김창대, 유성경, 2011)에서 낮은 상담 성과를 보인 내담자의 상담 경험은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내담자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지님, 상담에 대한 기대가 양극화 되어 있음, 개방에 대한 불편감, 상담 받는 것 자체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신경쓰임 등이다. 두 번째 영역인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담자와의 관

계에서 솔직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음, 상담자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아쉬움, 역할로서의 상담자/사무적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도출되었다. 셋째, 상담과정 및 기술영역에서는 상담 초반에 상담이 곁들였고 밋밋하며 깊어지는 계기가 없었음,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나 상담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경험(불만, 서운함, 불안, 답답함, 실망감, 두려움)을 다루기 어려움, 상담자가 드러내지 못하는 나를 알거나 내적으로 작용하는 저항을 다루지 못함, 상담에서 주호소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았음, 상담에 대한 몰입과 헌신도가 떨어짐, 나에 대한 상담자의 일반화, 조언, 단편적 해석에 대한 불만, 종결단계에서 미진한 부분 있었음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영역인 상담성과로는 가족역동이 지금 여기의 패턴으로 나타난 것을 알게 해줌, 나에 대한 전반적 이해, 상담자가 잘 들어줌, 원하던 걸 딱 얻지는 못함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대상인 청소년은 성인내담자와 달리 낮은 상담기대를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 이것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자율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어른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여 성인 상담자와 긍정적 치료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DiGiuseppe, Linscott, & Jilton, 1996; Shirk, & Russell, 1998). 또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인에 비해 더 어렵고, 자아정체감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상담성과는 내담자의 상담에 임하는 낮은 기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상담 성과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자의 개인변인, 내담자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청소년동반자 직무특성상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낮은 동기를 상담과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 상담의 성공적 상담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청소년동반자의 상담 현황분석

전국 청소년동반자 현황조사는 매년 상반기에 전국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3월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CYS-Net 종합정보망을 통해 문서로 현황조사 참여를 요청하고 메일로 자료를 취합하였다. 이번 현황조사에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10개 센터 모두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센터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2014년 현황조사 참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당 시·도	해당 지역
서울	서울, 노원,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중랑, 강북, 도봉, 성동, 서대문, 은평, 서초, 송파, 마포, 광진, 강서, 관악, 동대문, 용산, 구로, 강동, 종로, 금천
부산	부산, 영도, 진구, 금정, 북구, 해운대
대구	대구
인천	인천, 서구
광주	광주
대전	대전
울산	울산, 동구, 북구
세종	세종
경기	경기,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하남, 군포, 의왕, 용인, 파주, 김포, 양주, 화성, 광주, 수원, 포천
강원	강원, 강릉, 원주, 철원, 영월, 속초, 정선, 홍천
충북	충북, 충주, 청주, 제천
충남	충남
전북	전북, 군산
전남	전남, 나주, 해남, 완도, 광양, 화순, 곡성, 영광
경북	경북
경남	창원, 창원마산, 진주, 창원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	제주, 서귀포
전 체	110개 센터

2.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 계층 분류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따라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문제는 복잡적이어서 어느 하나의 특정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유형을 분류하여 상담요구를 파악하기 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유형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담요구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반응 패턴에 따라 계층을 분류할 수 있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고 문제 계층에 따른 상담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조사대상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의 연구를 위해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일 연령대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시점의 청소년동반자에 의뢰된 위기청소년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떠한 계층이 형성되는지와 계층에 따라 상담요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여 좀 더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17개 시·도 및 각 시·도에 소속된 시군구 센터에 협조요청을 하여 총 359부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나. 조사도구

1) 동반자용 설문

동반자용 설문 문항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묻는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III-2] 동반자용 설문 문항

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해당문항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생년월일, 재학 학교, 학년, 거주지, 상담 진행 회기수, 가정상태, 가족 형태, 사회경제적 수준,	6	1~6
대상자의 현재 상태 요인	물질적 지원 정도, 정서적 지원 정도, 부모 상담필요도, 협조 여부, 부모의 상담에의 관심, 대상자의 지지자원, 위기스크리닝 점수	10	1~10

2) 청소년용 설문

가) 호소문제

위기결과는 CYS-Net 종합정보시스템망에서 입력항목으로 되어있는 호소문제유형을 살펴 보았다. 이 호소문제유형들은 청소년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영역들로서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 및 진로, 성(性),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 생활 습관/외모불만족, 컴퓨터/인터넷 과다사용, 정보부족, 법률문제로 구분하였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 중 호소정도에 따라 1, 2, 3 순위로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 상담요구

상담요구 문항은 청소년동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진이 제작하였다. 그동안 청소년동반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상담요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의 상담요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정하여 문항으로 만들었다.

[표 III-3] 상담요구

영역	문항 수	해당문항	Cronbach's α
상담자 도움특성	10	1,2,3,4,5,6,7,9,10,12	.908
상담에 방해되는 내적 특성	9	17,18,19,20,21,22,23,24,25	.904
상담에 방해되는 가족 특성	3	27,28,29	.891
상담에 도움되는 학교·또래 특성	3	14,15,16	.741
합계	25		.774

다) 리질리언스

본 척도는 한국판 코너 데이비드슨 리질리언스 척도(K-CD-RISC)는 모두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로 역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각 문항이 얼마나 자신을 표현하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점수로 총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회복 정도를 뜻한다. 위 표에서와 같이 본 척도는 다섯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제작 당시 전체 내적 일치도는 .93이었고, 장은량과 유성은(2014)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는 .95로 나타났다.

[표 III-4] 리질리언스

영역	문항 수	해당문항	Cronbach's α
강인성(hardiness)	8	Z10, Z11, Z12, Z16,Z17, Z23, Z24, Z25	.904
인내력(persistence)	7	Z6, Z7, Z14, Z15,Z18, Z19, Z20	.840
낙관성(optimism)	5	Z1, Z2, Z4, Z5, Z8	.765
통제감(control)	3	Z13, Z21, Z22	.746
영성(spiritual in nature)	2	Z3, Z9	.443
합계	25		.947

라) 학대

본 척도는 아동학대 실태 조사(보건복지부, 2011)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갈등 전술척도(CTSP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27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석시에는 경험 미경험으로 이분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III-5] 학대

하위요인	문항수	해당문항	Cronbach's α
신체적 공격	13	1,2,4,5,6,8,10,12,13,14,15,16,18	.904
정서적 공격	5	3,7,9,11,17	.840
방임	5	19,20,21,22,23	.765
비폭력적 훈육	4	24,25,26,27	.746
합계	27		.443

3) 분석방법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중복된 복합유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문제유형에 대한 분석보다는 여러 문제유형들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중복 패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특정 반응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이 유용하다. 잠재계층분석은 이분변인들의 반응 패턴에 따라 계층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한 개인의 반응패턴으로 어떤 계층에 속할지 확률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잠재계층분석은 관찰된 변인들(observed variables)사이의 관계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공통변인(latent common factor)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요인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분석 대상이 연속변인이 아

닌 범주변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또한 잠재계층분석은 관찰된 변인과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 변인의 확률적 관계를 파악하고 각 사례들이 잠재변인의 각 계층(class)에 속할 확률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해서 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문제유형이 어떤 계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각 계층에 따른 상담요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동반자들이 내담자를 대상으로 분류한 4가지 문제유형(개인문제, 가족문제, 또래 및 학교 문제, 지역사회문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각 문제유형별 높고 낮음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0과 1로 코딩하여, 즉 이분변인으로 변환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3. 효과적인 상담요인 도출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심층면접

가. 조사 대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상담성과 파악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별 청소년동반자 구성 인원 수에 따라 할당 표집하였다. 이를 위해 8개 광역시,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경상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 연구목적을 밝히고, 청소년동반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구했다. 이에, 동의한 24명의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로 청소년동반자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그 결과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부산, 광주, 전북,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들로 남자 1명, 여자 23명이었다.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자료는 표Ⅲ-6에 제시되었다.

[표Ⅲ-6]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	4.2%
	여	23	95.8%
연령	20대	1	4.2%
	30대	5	20.8%
	40대	8	33.3%
	50대	10	41.7%
학력	학사졸업	2	8.3%
	석사과정	4	16.7%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석사졸업	15	62.5%
	박사과정	3	12.5%
	박사졸업	0	0.0%
활동경력	3년 미만	1	4.2%
	3년-5년 미만	16	66.7%
	5년 이상	7	29.2%
근무형태	전일제	11	45.8%
	시간제	13	54.2%
전공	상담학	6	25.0%
	사회복지학	8	33.3%
	아동가족학	4	16.7%
	교육학	2	8.3%
	기타	2	8.3%
자격현황	청소년상담사2급	7	18.4%
	청소년상담사3급	6	15.8%
	사회복지사1급	7	18.4%
	사회복지사2급	10	26.3%
	임상심리사2급	3	7.9%
	청소년지도사2급	5	13.2%

나. 조사 방법

선행연구 리뷰를 통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후 면접지는 연구팀들의 합의를 거쳐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용어로 수정되었는데, 질문지는 청소년동반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상담성과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들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동반자 각각에 대한 개별 면접시간은 약 1시간정도였다. 수집된 면접자료는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후 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CQR은 연구자들 간의 논의와 동의 과정을 통해 경험자료 내용을 범주화하고 감수자에게 검토를 받는 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참가자들의 내적 경험에 대한 복잡한 현상들을 자연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게 하는데, 특히 CQR은 주관적 경험내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4명의 연구자와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된 팀으로, 합의팀은 상담심리사 1급이

며 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자 3명과 상담심리사 1급이며 상담관련 박사수료 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상담경력은 10년이다. 감수자는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상담심리사 1급으로 상담경험과 연구경력을 지닌 교수를 선정하였다. 감수자는 또한 본 연구 이전에 합의적 질적분석 방법의 연구에서 합의팀과 감수팀으로 세 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합의팀은 사례 전체의 축어록마다 면접용 질문을 기초로 하여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한 후, 각각의 사례 3개씩을 함께 읽고 영역을 만든 다음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하였다. 이후 나머지 사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쳐 합의,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감수에서 지적된 내용은 합의팀의 토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Hill 등(2005)의 제안을 따라, 24사례의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12-22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3-11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 2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rare)'라고 표시하였다.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청소년동반자에게 사용한 질문영역은 표Ⅲ-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인터뷰 결과는 부록 2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Ⅲ-7] 심층면접 질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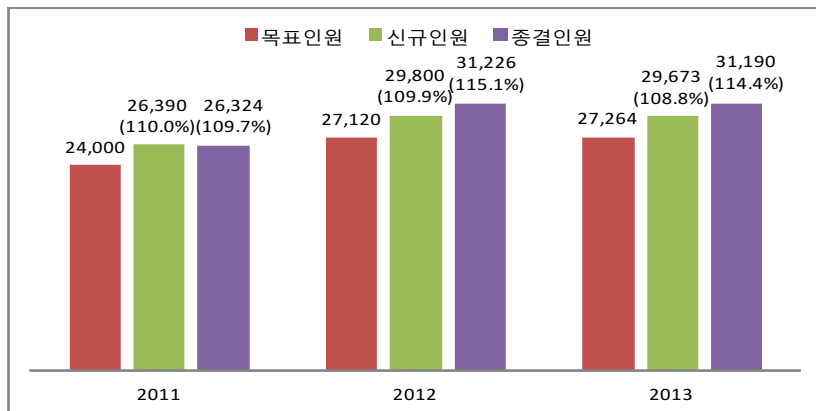
질문영역	상세질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상담성과는 어떠한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상담자 개인변인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상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담자 개인적 특성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상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내담자 환경적 특성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상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들은 상담성과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청소년동반자는 상담성과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IV. 연구 결과

1. 청소년동반자 현황조사 결과

가. 종합실적

2013년도 청소년동반자에 의해 이루어진 총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신규 내담자 인원은 29,673명이었고, 진행사례 인원은 31,005명으로 나타났다. 종결보고 된 인원은 31,190명으로 목표인원 27,264명 대비 114.4%의 높은 달성 실적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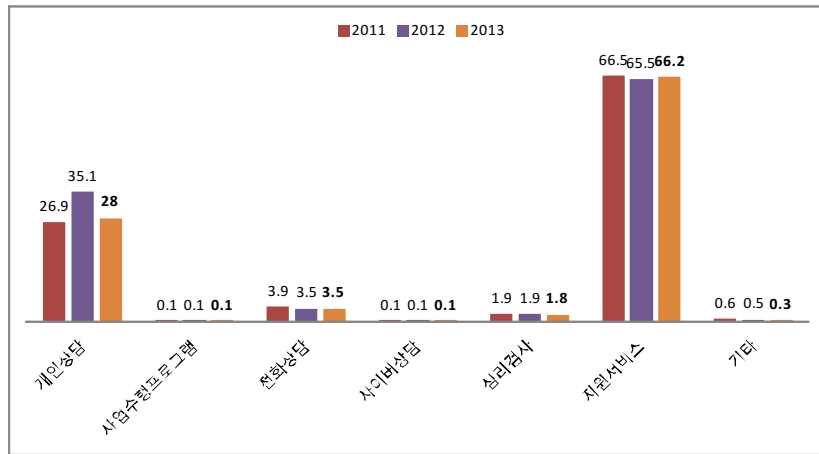


[그림 IV-1] 청소년동반자 상담 종합실적 비교

이들 청소년을 성별로 살펴보면, 진행사례수와 신규사례수, 종결사례수 모두 남자청소년의 비율(남 54.3%)이 여자청소년(45.7%)에 비해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자청소년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회기별 보고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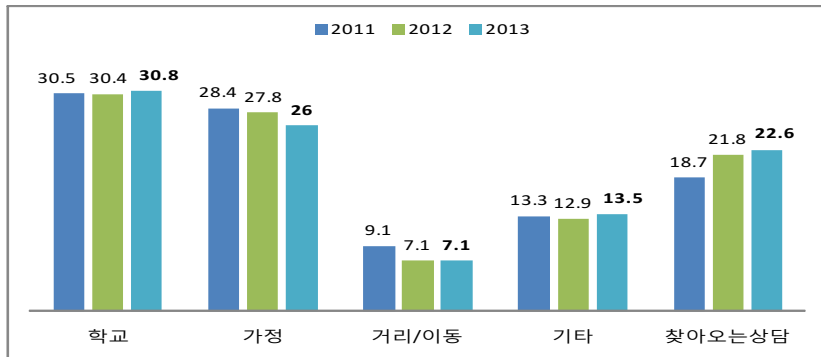
회기별 보고실적에 있어서는, 2013년도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중 지원서비스의 비율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상담이 28.0%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2013년 종결사례수 31,190명으로 계산했을 때 1명의 청소년에게 평균 9.1회의 개인상담과 21.5회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나타낸다.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1명의 청소년에게 평균 32.5회의 상담 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회기보고 실적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나, 전화상담은 같은 비율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수행 프로그램과 사이버상담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청소년동반자 회기보고 실적 비교

다. 상담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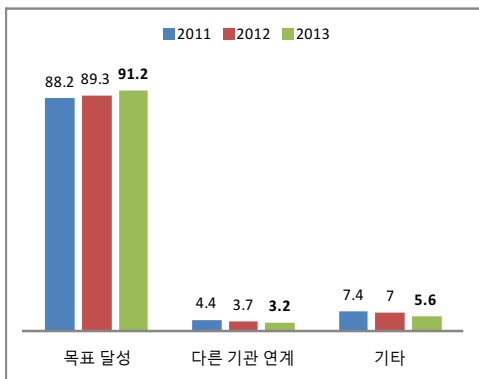
회기보고 실적 중 개인상담 부분만 살펴보면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을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비율은 77.4%였으며, 주로 학교(30.8%)와 가정(26.0%)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길거리, 기타의 장소 비율도 20.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상담 받는 청소년은 남학생이 많으며, 1명의 청소년이 보통 9회 가량의 개인상담을 받으며 도중에 32회 가량의 지원서비스(차량지원 등)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로 보아 청소년동반자의 대상청소년은 주로 학생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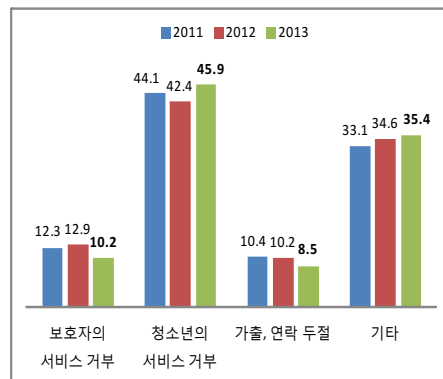
[그림 IV-3] 청소년동반자 상담 장소 비교

라. 종결유형

2013년도에 상담이 종결되는 유형별을 살펴보기 위해 CYS-Net 종합정보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합의종결 24,359명 중 22,225명(86.8%)이 목표 달성 후 종결하였으며, 770명(3.2%)이 다른 서비스 기관으로 연계되어 종결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95.1%의 대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012년의 93.9%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종결 1,243명 중 570명(45.9%)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거부하여 종결되었고,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 및 가출, 연락 두절로 인한 조기종결도 각각 127명(10.2%), 106명(8.5%)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기종결 비율은 2011년 6.5%, 2012년 6.1%, 2013년 4.9%의 비율로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종결은 95%가 성공적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동반자들이 대부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IV-4] 합의종결 유형 비교



[그림 IV-5] 조기종결 유형 비교

2.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 계층 분류 결과

가. 청소년 인구학적 정보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총 359명이었다. 이들 중 45.1%(162명)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18.9%, 68명).

[표Ⅳ-1]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재학 상태 명(%)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검정 고시 학원	직업 학교	직업훈련 기관	소년원	다니지 않음	계
명 (%)	43 (12.1)	162 (45.5)	68 (19.1)	46 (12.9)	1 (.3)	6 (1.7)	1 (.3)	2 (.6)	27 (7.6)	356 (100.0)

이들의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18.9%)과 중학교 1학년(18.6%)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며 초등학교 5, 6학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Ⅳ-2]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학년상태 명(%)

학년	초등 5년	초등 6년	중등 1년	중등 2년	중등 3년	고등 1년	고등 2년	고등 3년	계
명 (%)	20 (5.7)	20 (5.7)	65 (18.6)	50 (14.3)	53 (15.2)	66 (18.9)	41 (11.7)	34 (9.7)	349 (100.0)

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는 2-3명이 가장 많았다(48.3%, 169명). 그 다음으로는 1명이 많았다(37.7%, 132명).

[표Ⅳ-3] 동반자 수해 청소년이 도움을 청할 사람의 수 명(%)

가정형태	없다	1명	2-3명	4명 이상	계
명 (%)	35 (10.0)	132 (37.7)	169 (48.3)	14 (4.0)	350 (100.0)

지역별로는 17개 시도에서 대체로 비슷한 분포로 표집(각 10% 내외)이 되었으며 경기도(16.6%)와 경상남도(14.0%)가 근소하게 많이 표집되었다. 이들의 상담회기는 평균 9.7회였으며 최소 1회기부터 최대 50회기 까지였다. 부모의 상담회기는 평균 2.4회기였으며 최소 1회기부터 최대 14회기 까지였다.

나. 청소년의 가정환경 실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은 부모(양육자)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문제유형 및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정환경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들의 가정형태에서 일반적인 가정형태가 가장 높았지만(55.7%, 200명) 이혼가정의 빈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32.1%, 113명). 그 다음으로는 이혼 후 재혼 등 재구성 가정이 높게 나타났다(8.2%, 29명). 따라서 청소년동반자에 의뢰된 청소년들의 경우 이혼 등 해체가정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Ⅳ-4] 동반자 수혜 청소년의 가정형태 명(%)

가정형태	이혼	미혼모	재구성 가정	새터민	다문화	해당없음	계
명	113	2	29	3	5	200	352
(%)	(32.1)	(0.6)	(8.2)	(0.9)	(1.4)	(55.7)	(100.0)

청소년들의 가족구성원은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53.4%(1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모’ 가정이 17.2%(61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편부’가정은 9.9%(35명)이었으며 ‘계부와 친모’가정과 ‘계모와 친부’가정이 각각 5.4%(19명)였다.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을 ‘상’, ‘중’, ‘하’로 표시할 때, 대체로 ‘중’이 많았으며(51.4%, 182명), ‘하’ 또한 많아(45.2%, 160명) 가정경제가 ‘중’이하의 상황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Ⅳ-5] 동반자 수혜 청소년의 경제수준 명(%)

경제수준	상	중	하	계
명	12	182	160	354
(%)	(3.4)	(51.4)	(45.2)	(100.0)

이들 가정이 부모 혹은 조부모, 친척 등으로부터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지를 표시하게 한 문항에서는 물질지원의 경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지만(28.4%, 100명) ‘받고 있는 편이다’는 의견도 많았다(27.3%, 96명). 정서적 지원의 경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47.9%(1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의 청소년 내담자들은 주변사람들의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서적인 지원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Ⅳ-6] 동반자 수혜 청소년에 대한 물질 및 정서지원의 정도 명(%)

구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계
물질지원	21 (6.0)	100 (28.4)	94 (26.7)	96 (27.3)	41 (11.6)	352 (100.0)
정서지원	38 (10.7)	170 (47.9)	65 (18.3)	70 (19.7)	12 (3.4)	355 (100.0)

청소년 부모의 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필요하다’ 43.5%, ‘매우필요하다’ 31.4%). 따라서 청소년동반자들의 내담자는 부모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Ⅳ-7] 동반자 수혜 청소년에 대한 부모상담 필요성 명(%)

가정형태	전혀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명 (%)	1 (0.3)	19 (5.4)	69 (19.5)	154 (43.5)	111 (31.4)	354 (100.0)

청소년들의 상담에 대한 부모 협조는 ‘협조적이지만 시간내기가 힘들다’라는 반응이 48.0%(1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협조적이다’가 36.6%(129명), ‘협조적이지 않다’가 15.3%(54명)으로 대체로 자녀의 상담에 협조적이지만 시간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관심이 있다’가 가장 많았으며(39.4%, 140명)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7.3%(97명), ‘매우 관심이 있다’ 15.5%(55명) 순이었다.

[표Ⅳ-8] 동반자 수혜 청소년에 대한 부모관심의 정도 명(%)

가정형태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없다	보통이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계
명 (%)	24 (6.8)	39 (11.0)	97 (27.3)	140 (39.4)	55 (15.5)	355 (100.0)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학대경험과 관련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을 하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총 349명 중 256명(73.4%)의 청소년이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9]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학대 경험 여부

명(%)

구분	경험	미경험	계
초등 5, 6학년	28(70.0%)	12(30.0%)	40(100.0%)
중학교	118(70.2%)	50(29.8%)	168(100.0%)
고등학교	110(78.0%)	31(22.0%)	141(100.0%)
계	256(73.4%)	93(26.6%)	349(100.0%)

또한 학대경험은 신체적 공격, 정서적 공격,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중복체 크가 가능하다. 경험별 빈도 분석 결과, 정서적 공격, 신체적 공격,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학대경험 빈도에 관하여 부록3으로 첨부하였다.

[표Ⅳ-10] 동반자 수해 청소년의 학대 경험(중복체크)

명(%)

구분	신체적 공격	정서적 공격	방임	계
초등 5,6학년	22(36.7%)	23(38.3%)	15(25.0%)	58(100.0%)
중학교	83(32.8%)	107(42.3%)	63(24.9%)	253(100.0%)
고등학교	74(31.9%)	100(43.1%)	58(25.0%)	232(100.0%)

다. 청소년문제 유형에 대한 잠재계층분석

청소년동반자가 내담자에 대해 4가지로 문제유형을 분류한 형태에 대해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4가지 문제유형은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지역사회로 청소년문제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주요문제영역이다. 개인영역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있는 내적 문제로 불안, 우울, 충동 등 정서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스스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영역은 부모, 형제 등 가족 간의 갈등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이다. 학교 및 또래영역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및 학교 또래와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사회 영역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나 그 지역사회이 구조적인 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 4가지 영역들은 청소년상담현장에서 주요 분류체계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동반자가 내담자를 의뢰받을 때 각 4가지 영역에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리커트(Likert) 점수로 입력하고 있다. 개인, 가족, 학교·또래영역은 0~7점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영역은 0~3점으로 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가지 문제영역에 대해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4가지 문제영역이 어떠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잠재계층분석은 이분 범주 변인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있기 때문에 4가지 영역 각각에 대해서 ‘높은 집단’, ‘낮은 집단’으로 이분하여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리커트 점수에 대해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영역을 높고 낮음이라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59명의 내담자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개인문제 영역의 경우 군집1(낮은 집단)이 평균 1.60이었으며 총 313명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개인문제 영역의 군집2(높은 집단)의 경우 평균 4.67이었으며 총 46명이 해당되었다. 가족문제 영역의 경우 군집1(낮은 집단)이 평균 1.30이었으며 총 316명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가족문제 영역의 군집2(높은 집단)의 경우 평균 4.86이었으며 총 43명이 해당되었다. 학교 및 또래문제 영역의 경우 군집1(낮은 집단)이 평균 .94이었으며 총 289명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학교 및 또래문제 영역의 군집2(높은 집단)의 경우 평균 3.67이었으며 총 70명이 해당되었다. 지역사회문제 영역의 경우 군집1(낮은 집단)이 평균 .21이었으며 총 342명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문제 영역의 군집2(높은 집단)의 경우 평균 2.18이었으며 총 17명이 해당되었다.

[표Ⅳ-11] 4가지 문제영역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문제영역	군집분석				
	군집 평균		군집 사례 수(명)		
	군집1	군집2	군집1	군집2	계
개인	1.60	4.67	313	46	359
가족	1.30	4.86	316	43	359
학교·또래	.94	3.66	289	70	359
지역사회	.21	2.18	342	17	359

군집분석결과로 나타난 각 문제영역별 낮고, 높은 집단을 각 0과 1로 코딩하여 이 자료를 가지고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 모형 판단을 위해 우도비 카이자승(likelihood ratio chi-square test)으로 모형 합치도(goodness of model fit)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2계층, 3계층 모형이 우도비 카이자승 검증에서 모형합치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2계층 $\chi^2=3.465$, $df=6$, $p>.05$, 3계층 $\chi^2=1.483$, $df=1$, $p>.05$). 계층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두 모형 간의 카이자승 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두 모형간의 카이자승 값의 차이는 1.982로 $df=5$ 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모형에 대한 우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모형의 경제성 원칙에 따라 더 적은 수의 계층을 가진 모형이 더 선호된다.

또한 계층 선정을 위해서 2차 기준인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와 Aikake' information criterion(AIC) 값을 살펴보았다. 이 지표들은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이 모형 선택에 유리한 기준이 된다. BIC, AIC, 수정된 BIC 모두 2계층 모형에서 더 작은 값을 보여 2계층이 3계층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Ⅳ-12] 청소년동반자 내담자의 4가지 문제영역에 대한 잠재계층 모형 검증

모형	χ^2	df	BIC	AIC	Adjusted BIC
2계층	3.465	6	946.14	911.19	917.59
3계층	1.483	1	973.58	919.21	929.16

<표Ⅳ-13>은 문제유형별 반응 패턴에 따른 각 계층에 속할 조건 반응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반응확률은 개인들 반응 패턴에 따라 산출되는 계층 배정 확률이다. 4 가지 문제 영역들을 0과 1로 코딩하여 높고 낮음을 구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의 수는 총 16가지이다. 잠재계층분석결과 15개의 패턴이 나타났으며, 각 패턴별로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표시하였다. 4 가지 영역이 모두 높은 패턴(1, 1, 1, 1 로 코딩된 패턴)의 개인들은 계층 2에 속할 확률이 100%이다. 반면 모두 낮은 패턴(0, 0, 0, 0으로 코딩된 패턴의 경우 계층 1에 속할 확률이 99.9%이다. 따라서 각 계층에 속할 패턴들을 살펴보면 계층 1의 경우 대부분 1개 이하의 문제영역이 높은 저 위험군으로 보이며, 계층 2의 경우 2개 이상의 문제 영역이 복합된 고 위험군으로 생각된다.

[표Ⅳ-13] 각 계층별 조건 반응 확률

계층	문제영역 반응 패턴				배정 확률		빈도 (명)
	개인	가족	학교또래	지역사회	계층1	계층2	
계층1 (저 위험군)	0	0	0	0	.999	.001	252
	0	0	1	0	.974	.026	34
	0	1	0	0	.974	.026	14
	1	0	0	0	.915	.085	12
	0	0	0	1	.993	.007	6
	0	0	1	1	.766	.234	2
	0	1	0	1	.771	.229	1
	계						

계층	문제영역 반응 패턴				배정 확률		빈도 (명)
	개인	가족	학교또래	지역사회	계층1	계층2	
계층2 (고 위험군)	1	1	1	0	.005	.995	15
	1	0	1	0	.188	.812	9
	1	1	1	1	.000	1.000	5
	0	1	1	0	.450	.550	3
	1	1	0	0	.192	.808	3
	1	1	0	1	.021	.979	1
	1	0	1	1	.020	.980	1
	0	1	1	1	.068	.932	1
계							38

1= '문제영역 높음', 0= '문제영역 낮음'

라. 문제 패턴 계층에 따른 상담요구 분석

잠재계층분석 결과로 나타난 2계층 모형으로 각 계층별 상담 욕구를 분석하였다. 상담 요구는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로 도출된 상담요구문항과 한국판 코너 데이비드슨 리질리언스 척도(K-CD-RISC)조사 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상담요구문항 분석

이를 위하여 상담요구문항을 도출하여 조사를 하였다. 상담요구문항은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고 이 자료로부터 CQR 분석을 하여 문항 도출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도출된 문항은 총 29문항으로 상담을 하면서 도움이 된 요인과 방해가 되었던 요인들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785로 비교적 높은 내적신뢰도를 보였다.

상담요구문항을 요인별로 축소하여 결과를 살펴보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식은 주축요인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사용하였다. 29개의 문항 중 다른 여러 요인에 요인부하 값이 .3이 넘거나 각 요인에 걸친 부하량 값의 차이가 .1 이하인 경우, 그리고 해석의 의미가 모호한 문항 4개는 삭제하였다. 최종 25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 1이상인 요인이 4개가 추출되었으며 전체변량의 55.78%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상담자가 도움이 된 특성들로 배열되었다. 즉 요인 1은 상담자가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장점과 긍정적인 점을 찾아 주는 등 상담자의 태도 및 역할이 상담에 도움이 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2는 상담에 있어 방해가 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의 우울한 성격, 부정적 성격, 내성적 성격, 충동적인 성격 등 부정적인 내적인 성향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 3은 가족의 불화와 같은 가족 내 갈등이 상담에 방해가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4는 학교 교사, 또래들의 관심 등이 상담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들을 정리하자면, 요인1은 상담자 도움 특성, 요인2은 상담에 방해되는 내적 특성, 요인 3은 상담에 방해되는 가족 특성, 요인 4는 상담에 도움이 되는 학교·또래 특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Ⅳ-14] 상담요구문항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3.상담선생님이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상담 하는데 도움이 된다.	.783	-.153	-.077	.013
1.상담선생님이 나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744	-.131	-.170	.105
2.상담선생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742	-.133	-.104	.004
4.상담선생님이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담에 참여하기가 수월하다.	.718	-.190	-.145	.137
5.상담선생님과 빨리 친해진 것이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714	-.188	-.040	.133
6.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상담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도움이 된다.	.699	-.191	-.084	.149
12.상담선생님이 내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셔서 도움이 된다.	.647	-.127	.028	.321
10.상담선생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640	-.012	-.021	.181
7.상담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 해 준 것이 도움이 된다.	.638	-.152	-.091	.113
9.상담선생님과 상담을 되도록이면 오래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549	-.016	.054	.148
23.나의 우울한 성격이 상담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	-.131	.730	.165	-.152
25.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담을 방해한다.	-.088	.726	.185	-.315
22.말수가 적은 나의 성격이 상담에 방해가 된다.	-.121	.704	.030	-.080

문항	요인부하량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24.상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담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	-.131	.687	.133	-.033
21.화를 별컹별컹 내는 내 모습이 상담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078	.684	.253	-.086
17.충동적인 내 모습 때문에 상담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	-.103	.682	.134	.079
18.상담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상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끔 하는데 방해가 된다.	-.085	.679	.062	.132
20.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상담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한다.	-.248	.673	.210	-.018
19.내 고민이 너무 심각해서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상담에 몰입하기 어렵다.	-.207	.637	.205	.022
28.우리 집의 무관심한 분위기가 상담진행에 방해가 된다.	-.136	.368	.843	-.087
27.부모님의 불화가 상담 진행에 방해가 된다.	-.129	.433	.738	-.081
29.부모님(양육자)이 변하지 않아서 상담을 해도 고민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107	.417	.647	-.139
15.학교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313	-.019	-.082	.689
16.친구들이 잘 도와주어서 상담이 잘 진행된다.	.145	.004	-.039	.631
14.강압적이지 않은 학교 분위기가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355	-.131	-.123	.595

2) 상담요구 요인에 대한 문제 패턴별 계층의 차이 분석

상담요구 4요인에 대한 문제 패턴별 2계층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적 방해 요인과 가족 방해 요인이 두 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내적 방해 요인의 경우 저위험 계층의 평균(17.864)과 고위험계층의 평균(22.188)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483$, $df=318$, $p<.001$). 즉 내적 방해 요인의 경우 고위험 계층이 저위험 계층에 비해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방해 요인의 경우 저위험 계층 평균(5.565)과 고위험 계층 평균(6.939)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는데($t=-2.466$, $df=316$, $p<.05$) 고위험 계층이 가족 간의 갈등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15] 상담요구요인에 대한 계층별 평균 차이 검증(t-test)

요인	계층	N	평균	표준편차	t
상담자 도움 요인	저위험	287	42,669	5,291	-.965
	고위험	33	43,606	5,226	
내적 방해 요인	저위험	279	17,864	6,693	-3.483***
	고위험	32	22,188	6,265	
가족 방해 요인	저위험	285	5,565	2,762	-2.466*
	고위험	33	6,939	3,436	
학교또래 도움 요인	저위험	292	10,503	2,605	1,945
	고위험	33	9,546	3,299	

*** $p < .001$, ** $p < .05$

3) 리질리언스에 대한 문제 패턴별 계층의 차이 분석

리질리언스 하위변인에 대한 문제 패턴별 2계층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강인성과 인내력, 그리고 낙관성에서 저위험군이 고위험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성의 경우 저위험 계층의 평균(27.668)과 고위험계층의 평균(24.206)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197$, $df=318$, $p < .01$). 인내력의 경우 저위험 계층 평균(21.136)과 고위험 계층 평균(19.031)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t=2.590$, $df=317$, $p < .01$). 낙관성의 경우 저위험 계층 평균(3.265)과 고위험 계층 평균(3.136)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t=2.943$, $df=322$, $p < .01$). 이러한 결과는 저위험 계층의 경우 강인성과 인내력, 낙관성에 있어 고위험 계층에 비해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Ⅳ-16] 리질리언스에 대한 계층별 평균 차이 검증(t-test)

하위변인	계층	N	평균	표준편차	t
강인성	저위험	286	27,668	5,939	3.197**
	고위험	34	24,206	6,217	
인내력	저위험	287	21,136	4,334	2.590**
	고위험	32	19,031	4,604	
낙관성	저위험	290	18,235	3,265	2.943**
	고위험	34	16,500	3,136	
통제감	저위험	289	10,606	2,390	1,800
	고위험	34	9,824	2,455	
영성	저위험	293	6,963	1,668	.567
	고위험	34	6,794	1,343	

** $p < .01$

4) 부모상담에 대한 패턴별 계층의 차이 분석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가 실제로 변화하였는지 각 계층별 내담자가 지각하는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3점 정도로(보통 수준)으로 부모가 변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상담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지각하는 수준에 계층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변화정도와 마찬가지로 두 계층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두 계층 모두 평균 3.5점 정도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표Ⅳ-17] 부모상담에 대한 계층별 평균 차이 검증(t-test)

하위변인	계층	N	평균	표준편차	t
부모변화	저위험	221	3.231	.989	1.541
	고위험	30	2.933	1.015	
부모상담 도움	저위험	219	3.690	.916	.934
	고위험	29	3.517	1.056	

5) 각 계층별 주요 호소문제에 대한 교차빈도 분석

각 계층이 호소하고 있는 주요 호소문제 빈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호소문제는 총 11가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호소문제를 분류하는 체계이다. ‘가족문제’, ‘일탈 및 비행문제’, ‘학업 및 진로문제’, ‘성문제’, ‘성격문제’, ‘대인관계문제’, ‘정신건강문제’, ‘생활습관문제’, ‘인터넷 과다 사용문제’, ‘정보부족문제’, ‘법률문제’가 해당된다.

이들 호소문제 중에 가장 해결하고 싶은 1순위 주요호소문제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가족문제(전체 34.2%)와 학업 및 진로(34.2%)가 가장 많았다. 계층별로는 빈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 = 7.791$, $df=7$, $p>.05$).

해결하고 싶은 2순위 주요호소문제는 정신건강(전체 27.1%)과 대인관계문제(23.7%)가 문제가 많았으며 계층별로는 빈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 = 15.433$, $df=9$, $p>.05$).

[표Ⅳ-18] 1순위 호소문제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결과

명(%)

구분	저위험	고위험	전체
가족문제	97 (33.3%)	14 (41.2%)	111 (34.2%)
일탈 및 비행	14 (4.8%)	0 (0%)	14 (4.3%)
학업 및 진로	101 (34.7%)	10 (29.4%)	111 (34.2%)
성문제	4 (1.4%)	0 (0%)	4 (1.2%)
성격문제	32 (11.0%)	1 (2.9%)	33 (10.2%)
대인관계문제	32 (11.0%)	7 (20.6%)	39 (12.0%)
정신건강문제	10 (3.4%)	2 (5.9%)	12 (3.7%)
생활습관문제	1 (.3%)	0 (0%)	1 (.3%)
계	291 (100%)	34 (100%)	325 (100%)

[표Ⅳ-19] 2순위 호소문제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결과

명(%)

구분	저위험	고위험	전체
일탈 및 비행	3 (1.1%)	1 (3.3%)	4 (1.4%)
학업 및 진로	37 (14.0%)	3 (10.0%)	40 (13.6%)
성문제	4 (1.5%)	0 (0%)	4 (1.4%)
성격문제	27 (10.2%)	3 (10.0%)	30 (10.2%)
대인관계문제	67 (25.3%)	3 (10.0%)	70 (23.7%)
정신건강문제	64 (24.2%)	16 (53.3%)	80 (27.1%)
생활습관문제	25 (9.4%)	3 (10.0%)	28 (9.5%)
인터넷 과다	27 (10.2%)	1 (3.3%)	28 (9.5%)
정보 부족	9 (3.4%)	0 (0%)	9 (3.1%)
법률문제	2 (.8%)	0 (0%)	2 (.7%)
계	265 (100%)	30 (100%)	295 (100%)

6) 청소년동반자와 상담하면서 재미있었던 경험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

청소년동반자와 상담하면서 재미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두 계층별로 교차빈도를 조사를 하였다. 모두 6가지 항목이었는데, ‘상담선생님과 상담 받는 것’, ‘이야기하며 간식 먹는 것’, ‘그냥 노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 ‘집을 나와 있다는 것’, ‘기타’ 항목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두 계층별로 기대되는 빈도의 차이가 없었으며($\chi^2 = 4.617$ $df=4$, $p>.05$) 두 계층 모두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받는 것을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으로 꼽았다(전체 70.9%).

[표Ⅳ-20] 상담하면서 재미있었던 경험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 명(%)

구분	1	2	3	4	5	계
저위험	64 (71.9%)	17 (19.1%)	2 (2.2%)	5 (5.6%)	1 (1.1%)	89 (100%)
고위험	9 (64.3%)	2 (14.3%)	0 (0%)	3 (21.4%)	0 (0%)	14 (100%)
계	73 (70.9%)	19 (18.4%)	2 (1.9%)	8 (7.8%)	1 (1.0%)	103 (100)

1.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받는 것 2. 이야기하며 간식 먹는 것 3. 그냥 노는 것 4. 친구들 만나는 것 5. 집을 나와 있다는 것 6. 기타

7) 다른 친구에게 상담 권유 의사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

청소년동반자와 상담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게 권유를 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빈도를 계층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에는 ‘권유’, ‘비권유’, ‘다른 곳 추천’, ‘다른 상담자 추천’, ‘적극 말림’이었다.

분석 결과 두 계층별로 기대되는 빈도의 차이가 없었으며($\chi^2 = .367$ $df=3$, $p>.05$) 두 계층 모두 권유하겠다고 압도적으로 많았다(전체 96.6%).

[표Ⅳ-21] 상담 권유 의사에 대한 계층별 교차빈도분석 명(%)

구분	1	2	3	4	5	계
저위험	283 (96.6%)	7 (2.4%)	1 (.3%)	2 (.7%)	0 (0%)	293 (100%)
고위험	33 (97.1%)	1 (2.9%)	0 (0%)	0 (0%)	0 (0%)	34 (100%)
계	316 (96.6%)	8 (8.0%)	1 (1.0%)	2 (2.0%)	0 (0%)	327 (100)

1. 권유, 2. 비권유, 3. 다른 곳 추천, 4. 다른 상담자 추천 5. 적극 말림

3. 청소년동반자 심층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 대상 면접내용을 통하여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상담자 개인변인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둘째,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셋째,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넷째, 대상청소년은 상담성과를 어떻게 지각하는가 다섯째, 청소년동반자들은 상담성과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영역별 반응예시는 부록 4에 수록하였다.

가.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개인변인

상담자 개인 변인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청소년동반자들이 제일 많이한 응답은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전형적)'이었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상담에 기본이 되는 라포 형성, 공감능력은 물론이고 세분화된 장애 영역에 따른 상담기술, 상담자 자신의 탐색, 지속적인 수퍼비전과 수련 등을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능력이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의 '변화를 위한 노력'(변동적), '따뜻함과 배려', '대상청소년을 향한 열정'(변동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청소년동반자들은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이 실제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성격인 청소년동반자의 대상 청소년들은 비자발적인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경향성은 대상 청소년이 지닌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상 청소년들은 상담과정 중 '단답과 침묵으로 일관함'(변동적), '무기력하고 철수됨'(변동적)을 보이며, 특히 ADHD나, 인터넷 중독, 경계선 지능 등 인지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 중독 문제 등이 표출되는 경우, 상담이 더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대상자의 경우, 상담자도 적극성을 띠게 되어 상담 성과가 좋다고 느끼고 있었다.

3)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 동반자들이 '부모와 가정의 영향력'(전형적)을 들었다. 가족의 구조와 역할,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는 대상 청소년의 기본적인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보이기 이전은 물론,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지지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가정만큼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사들의 영향력 또한 크다고 보았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 물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불만, 피해의식 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표Ⅳ-22]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역	범주	응답빈도
상담자 개인변인	1)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역량	전형적(13)
	2) 따뜻함과 배려	변동적(3)
	3) 변화를 위한 노력	변동적(5)
	4) 열정	변동적(3)
	5)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	드문(2)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	1)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라와주고 노력함	변동적(6)
	2) 단답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자발적임	변동적(6)
	3) 무기력함과 철수됨	변동적(7)
	4) 부정적 마인드	드문(2)
	5) 반항하거나 비협조적임	변동적(3)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	1) 부모	전형적(16)
	2) 경제적인 어려움	변동적(8)
	3) 학교와 교사	변동적(3)

나.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

청소년동반자와 상담하는 대상 청소년들은 상담 성과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동반자들은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경우'(변동적), '부모나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나서 지각하는 경우'(변동적), '상담 성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경우(드문)'의 세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청소년들

은 그 변화로 인해 상담의 효과성을 느껴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권하기도 하고, 상담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하지만, 상담성가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고 종결하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청소년동반자가 상담을 종결하는 시점에서 대상 청소년들에게 만족도나 상담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상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청소년동반자의 의욕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담 당시에는 잘 자각하지 못하다가 종결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학교나 직장에 적응하고, 대인관계를 해나가는 모습에서 상담의 효과를 자각하고, 청소년동반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드문).

[표Ⅳ-23]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성가에 대한 지각

영역	범주	응답빈도
청소년들의 상담성가에 대한 지각	1) 스스로 달라진 것을 느낌	변동적(7)
	2) 부모나 주변에서 이야기해주어 알게됨	변동적(3)
	3) 변화까지는 못 느끼나 도움이 되었음	변동적(6)
	4) 잘 모르겠음	드문(2)
	5) 종결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됨	드문(2)

다.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가에 대한 지각

청소년동반자들은 대상청소년들에게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 상담 성과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보고하였다(변동적). 비록 가시적인 성과만이 아니더라도, 상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변동적), 성과와 무관하게 청소년들과 함께 한 시간, 그들에 대한 청소년동반자들의 열정과 사랑, 노력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변동적)는 응답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동반자들은 상담 성과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상담을 진행할수록, 상담 개입방법 등이 처음보다 더 능숙하게 되고, 청소년들을 대하는 자신의 진정성, 열정 등을 느끼게 되는 반면,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는 성과에 대해서 낮게 지각하는 경향도 보였다.

[표Ⅳ-24]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가에 대한 지각

영역	범주	응답빈도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가에 대한 지각	1)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느껴짐	변동적(10)
	2) 성과와 상관없이 보람을 느낌	변동적(4)
	3) 어떤 면으로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변동적(7)
	4) 공감, 친밀감,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느낌	변동적(3)

V. 논의 및 시사점

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서비스로, 위기 청소년을 사회안전망 내로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005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개발, 시작된 이후로 여러 차례의 효과성 검증 연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들의 현황, 내담자들의 상담요구,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청소년동반자의 효과적인 상담요소를 도출해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동반자들에게 의뢰된 내담자들의 문제 패턴과 패턴별 상담요구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동반자의 면접을 실시, CQR로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청소년동반자는 전국 센터 200개 중 110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 종합실적은 신규 내담자 29,673명, 진행사례 인원은 31,005명이었으며, 종결보고 된 인원은 31,190명으로 목표인원 27,264명 대비 114.4%의 달성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반자 1명 대비 평균 약 31사례를 진행한 실적이다. 이는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 목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수혜목표인원 대비 실제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의 수 또한 매년 초과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성별(남 54.3%, 여 45.7%)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가 찾아가는 상담에 있어는 남자청소년의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종결사례수를 기준으로 1명의 청소년에게 평균 9.1회의 개인상담과 21.5회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전체적으로 1명의 청소년에게 평균 32.5회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진행해야 하는 사례 수에 비해서 더 많은 개입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소년동반자들이 상담 이외에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올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상담의 비율은 77.4%로 찾아오는 상담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이는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시간제동반자보다 전일제동반자의 업무량이 업무시간과 비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학교나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50%가 넘지만 그 이외에 길거리 7.1%, 기타 장소 13.5%(카페, 빵집 등)에서 상담하는 비율도 20%가 넘는다. 길거리 상담이나 기타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소음, 비용, 여건 등으로 인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움이 예상되어 상담 장소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기타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동반자의 활동비가 사용되므로 한 달에 지급되는 활동비가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조기종결 1,243명 중 570명(45.9%)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거부하여 종결되었고, 보호자의 서비스 거부 및 가출, 연락두절로 인한 조기종결도 각각 127명(10.2%), 106명(8.5%)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자발적인 내담자인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개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상담종결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은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대상 청소년의 개입 뿐 아니라 부모개입이 초기에 적절하게 필요하며, 상담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동반자 내담자들의 문제 계층 분류와 계층별 상담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환경 실태의 측면에서 청소년동반자 내담자의 가정형태가 이혼가정(32.1%), 재구성 가정(8.2%)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편모 가정의 비율(17.2%)이 높은 편이어서 가족에 대한 상담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반응에서 74.9%로 부모상담에 대한 상담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가 상담에 협조적이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운 편(48.0%)으로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지만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문제', '가족문제', '학교·또래 문제', '지역사회 문제'로 구분된 주요 청소년 문제유형에 따른 잠재계층 분석 결과 2계층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각각은 고위험 계층과 저위험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계층은 2개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유형을 공존한 유형이며 저위험 계층은 1개 미만의 문제유형을 가진 유형으로 나타났다. 각 계층별 상담욕구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 계층의 경우 상담의 효과를 저해하는 내적 방해 요인과 가족 방해 요인이 저위험 계층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 계층에게는 충동성, 부정적 성격, 우울한 기질 등이 저위험 계층에 비해 높

은 편이어서 내적 기질을 다루어줄 효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가족의 무관심, 갈등, 불화 등이 고위험 계층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에 대한 상담개입이 고위험 계층에는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심리적 탄력성에 대한 계층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는 강인성과 인내력 부분에서 저위험 계층에 비해 고위험 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심리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위험 계층에는 심리적 탄력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상담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계층별 호소 문제를 살펴본 결과 계층에 상관없이 학업 및 진로(34.2%), 가족문제(34.2%)를 해결하고 싶은 주요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지도와 가족에 대한 개입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상담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상담자 요인으로는 청소년동반자의 전문 역량이 가장 전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담자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 등 가정의 역할이 가장 전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와 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각한 상담성과에 대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낀다’는 보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변화까지는 못 느꼈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 또한 많았다. 이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각할 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셋째, 청소년동반자들이 자각한 상담성과로는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질 때 성과가 있다고 느껴진다’는 보고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어떤 면으로든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동반자들이 많아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성과가 의미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 크게 세 가지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황분석에서는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상담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해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상담수요에 비해 청소년동반자 인력이 적은 편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충원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동반자의 내담자 인구학적 특성과 문제유형 계층에 따른 상담요구 조사결과 가족체계가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부모 혹은 가족에 대한 상담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개 이상의 문제가 공존하는 고위험 계층의 경우 상담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가족의 문제가 나타나 개인 상담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상담요구는 높지만 여러 여건으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나 가족에게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종합하자면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일차적인 사회 안전망이 불안정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족 치료적 관점의 확대가 요구된다. 즉 부모의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상담의 성과에서 필요하다고 지각된 청소년동반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동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문제유형에 대한 이해와 고위험군 저위험군 등 문제 계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각 문제유형에 맞는 특성들이 충분히 고려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동반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 사례 분류체계인 4가지 유형에 대한 패턴으로 문제 계층을 분석하였지만, 각 계층별로 나타나는 세부적인 유형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가정, 학교·또래, 지역사회라는 4가지 주요 영역은 문제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포괄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유형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 유형별·내담자 개인 특성별 구체적인 상담개입 전략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문제유형별 특성과 상담 요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동반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이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비자발성, 침묵, 저항,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 무기력감 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동반자들의 면접결과, 청소년들은 인적, 물적 지지자원이 매우 부족하며, 이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감 상실 등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 특성별 개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들이 동시에 고려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동반자 활동 초기에 비해 현재는 청소년동반자라는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되고,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 부모, 학교 교사들에게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상 청소년들의 거

부, 상담실 세팅에 익숙한 부모나 학교 교사들의 편견은 청소년동반자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동반자들에게 소진을 경험하게 하여 활동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동반자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제언 :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 MST)

이상 종합된 결과에 근거하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가족환경에 개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가족에 대한 개입은 문제해결의 일반화와 장기적인 유지를 촉진하는 것이며(양현정, 오경자, 이상선, 신효정, 이기학, 송미경, 배주미, 지승희, 2006),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접근일 수 있다. 가정으로부터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나 충분한 애정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부모-자녀 간 건강한 의사소통 경험이 부족할 경우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기를 모델링을 통해 대인관계나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시기로 설명했고, 생태학적 이론에서도 청소년의 발달은 가족이나 이웃, 또래 등의 환경적 영향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가족이 제일 가까운 미시체계로서 모델링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도 비행(Henry, D. B., Tolan, P. H., & Gorman-Smith, D., 2001), 자살(하상훈, 2003; 하연희, 2001; Lester, 1987), 학교 부적응(장진아, 2006), 대인관계문제(이선화, 이지연, 2013) 등의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족관련 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중심 관점이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청소년동반자가 가족개입을 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으로는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관계,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 여부,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자원, 가족 구성원의 욕구,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Lipsey와 Wilson(1998)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비행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요인이 그들의 부모의 돌봄 기술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문제를 상담하며 그 외의 환경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나 태도가 중요함을 밝혔다. 이렇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돌봄기술이 부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 개

입 중에서도 부모개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 청소년은 열악한 환경과 개인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으로, 기존의 심리치료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보고되고 있다(Kazdin, 1997). 이에 미국에서는 기존의 개인중심적인 상담/심리 치료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론적 배경을 인간 행동의 사회생태학적 모형(Bronfenbrenner, 1979)에 두고 있는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 MST)가 제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MST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행동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중층적으로 결정된다는(multidetermined)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개입도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가족구성원, 그리고 모든 환경 체계(또래, 학교, 확대가족, 이웃, 지역사회 그룹 등)와 함께 작업한다. 특히 MST에서는 위기청소년의 문제형성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강력한 참여가 성공적 결과에 필수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치료과정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모델에서는 가족이나 타 협력자들이 청소년들의 위기 해결에 협조할 수 있는 환경 혹은 그들을 북돋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둘째, MST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표방한다. 집, 학교, 이웃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에 직접 찾아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MST는 치료를 위한 목표성취가 측정할 수 있는 범주내의 것을 시작으로 하고 목표설정은 가족 및 주요관련 인물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치료의 최종목표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발현된 문제행동이 더 큰 사회적 맥락내의 '적합성'이해를 돕기위해 MST분석과정(MST Analytic Process)을 사용한다.

넷째, 상담자는 2-4명의 팀으로 운영이 되며 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팀은 2-4명의 전일제 치료자들, 시간제 수퍼바이저, 적절한 조직지원자(컨설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내담자와 그들이 개입하고 있는 체계의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주일 내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며 적은 수의 사례를 배정하여 사례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 각 치료자들은 4-6가족들과 1주일에 3회 정도의 집중적인 대면 작업을 하며 팀의 구심점(main point) 역할을 한다.

다섯째, 매일 부모(보호자)는 MST의 9가지 원리 및 MST 분석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요하는 설문지를 작성한다. 부모가 답한 설문지는 가족의 관점에서 치료자가 어느 정도로 MST 모델과 일치하는 개입을 하는지를 나타낸다. 가족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치료자는 여러 사례에 대한 총 평균값을 받는다. 이러한 피드백은 MST치료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치료자들을 지원하는 팀 슈퍼바이저에게 제공되어 활용된다. 또한 치료자들은 무기명으로 격월로 MST모델에 대한 지도과정 준수를 평가한다. 치료자의 준수측정정도(Therapist's adherence measure: TAM)와 슈퍼바이저의 준수측정정도(Supervisor adherence measure: SAM)는 MST 서비스에 따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는 포괄적인 훈련자료, 분기별 실제적 조력자 훈련 및 주간 팀별 전화컨설팅의 제공 등을 통해 내담자들에게 MST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치료자와 슈퍼바이저를 돕는 것이다. 컨설턴트는 또한 SAM 합계와 발전목표점을 설정하는 슈퍼바이저의 발전계획 합계를 슈퍼바이저에게 피드백하는 역할도 한다.



[그림 V-1] MST 분석과정(MST Analytic Process)

MST는 현재 미국에서 근거중심 치료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사용되는 데에는 MST를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때문이다. Andrea, Nancy, Lucy, Geoffrey, Stephen(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절도문제로 형집행을 받은 청소년, 자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약물사용 청소년에 대하여 MST를 적용한 결과 각 문제 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MST가 갖는 특징으로 서비스 제공, 치료모델의 준수, 치료변화에 대한 장기적 관리를 하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료과정, 슈퍼비전 체계, 컨설팅 등에 대한 프로토콜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측면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ST는 치료자가 주도적이기 보다는 주양육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여 치료기간이 끝났을 때 자녀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Andrea, Nancy, Lucy, Geoffrey, Stephen(2012)는 범죄청소년에게 MST를 적용하고 치료과정과 결과에 대한 가족들의 경험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참여가족은 부모로서의 자신감, 부모역할 기술, 가족관계, 자녀에 대한 애정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의 변화는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MST의 효과는 비용절감의 효과로도 나타났다. 워싱턴주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1998), MST적 개입을 한 청소년들의 재범율이 개입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1인당 7,881달러의 비용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ST체계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족적 개입을 하는 것은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청소년동반자 체계에도 MST체계를 활용한 가족적 개입을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0년차에 접어든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이제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간은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인프라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동반자 인력 및 예산 증원,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상담개입절차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이제는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의 최근 경향을 분석하여 이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동반자 상담에서의 핵심 요소와 운영모형의 새로운 관점을 도출하고, 보다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추후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중치료체계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보완되고 심층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구본용, 박제일, 이은경, 김홍준, 이기숙, 권현용(2008).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프로그램 지도자용 지침서. 교육과학기술부.
- 구자경, 홍지영, 장유진(2001). 청소년의 자퇴 욕구 실태와 관련 특성 연구.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1-54.
- 권경인, 한영주, 김창대, 유성경(2011). 상담성도가 낮은 내담자들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상담학연구, 12(6), 1977-2005.
- 권현용, 김현미(2009).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1-12.
- 김기하(1997).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최수미(2009).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지원서비스 효과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2), 279-295.
- 김명자(2002). 청소년의 학교폭력행위 예측모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규, 전택일(1992).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김수연, 장재홍(2011).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기대가 작업동맹 및 상담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9(2), 155-170.
- 김순규(2006).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모형 - 보호요인의 부가, 매개, 조절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빈(2010). 내담자의 심리적 마음상태에 따른 상담자의 자기개방과 역전이 활용이 상담성도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 이명우 (1995). 청소년 문제유형분류체계 II.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형수, 최한나(2009). 청소년의 위기 중복 유형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21-536.

- 남영옥(2001).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 156-184.
- 류진아(2007). 위기청소년의 문제상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2), 59-71.
- 박한샘, 고은영(2009). 청소년동반자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0(4), 1971-1994.
- 배주미(2008). 청소년동반자 위기수준 및 유형에 따른 사례관리 모형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백진영(2008).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주(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복, 손승영, 조혜정, 황창순, 김병관, 정경희(1996). **학업중퇴자 연구 -실태와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송원영, 송미경, 노성덕, 이대형, 김호정, 박선경, 김현진(2011). 청소년동반자 지원서비스가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신재호, 정남운(2007). 초보상담자의 상담 성과에 관한 질적분석: 도움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889-911.
- 안귀여루, 박제일, 권현용(2009). 성남시청소년 자원간 효과적인 연계방안 연구. **성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양미진, 이자영, 손재환 (2010).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위기 유형 분류. **아시아교육연구**, 11(3), 1-20.
- 양재원, 오경자, 배주미(2009).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17.
- 양현정, 오경자, 이상선, 신호정, 이기학, 송미경, 배주미, 지승희(2006). 다중체계 치료 (Multisystemic Therapy)의 한국적 적용: 청소년동반자. **인지행동치료**, 6(1), 1-22.
- 오경자(2007). 강남구와 성동구에서 실시하는 생활과학교실 사례로 살펴본 학교 밖 과학교육활동의 흥미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기학, 배주미(2006). **청소년동반자 효과성 검증 연구 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오경자, 이기학, 지승희, 노일석, 배주미, 송미경, 신의진, 윤철수, 이상선, 홍성대(2005).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서울: 청소년위원회.

- 유성경, 안희정, 이소래, 오익수(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성경, 이소래(1998).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II: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2000). 청소년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윤진선(2005).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희섭, 정현희(2012).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463~2482.
- 이동근(2003). 청소년 상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리(1998). 청소년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유순덕(2008). 위기청소년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 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1), 141-170.
- 이선화, 이지연(2013).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과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1(4), 375-394.
-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청소년대화의광장.
- 이승훈(1996). 청소년의 여가동반자와 학교폭력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6, 181-190.
-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2002). 청소년 정신건강의 심리사회적 요인.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1996).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6(3).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윤수, 이혜리, 강윤주(1998).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기타 약물사용 실태: 서울시내 일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학지, 19, 43-57.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임고운(2009).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에 따른 상담성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식(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장은량, 유성은(2014). 외상경험자의 탄력성과 자살행동의 관계: 탄력성이 자살행동의 보호 요인이 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2), 299-314.
- 장진아(2006).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부모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은(2008). 가출청소년의 가출생활 전환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민(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위원회(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청소년위원회 활동복지단 복지자활팀.
- 최성순(2001).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환경과 정신건강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1994). 청소년 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 하상훈(2003).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자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제 1회 청소년 자살예방 세미나 자료집, 85-89.
- 하연희(2001). 중학생 자살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 2012청소년동반자 운영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허철수, 고강호, 고기홍, 이춘옥, 송미경(1998). 잠재적 중퇴원인과 상담지원정책연구. 제주: 제주시청소년상담센터.
- 홍경화(1990). 상담자의 자기관여 반응과 내담자의 자아개념이 상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2). 2012 청소년통계. 통계청.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rea, T., Nancy, P., Geoffrey, B. & Stephen, B. (2001). Multisystemic Therapy for young Offenders: Families' Experiences of Therapeutic Processes and Outcomes. *Jouranal of Family Psychology*, 26(2), 187-197.

- Arnett, J. J. (2000).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Prentice-Hall, Inc.
- Blashfield, R. K., & Draguns, J. G. (1976). Toward a taxonomy of psychopathology: the purpose of psychiatric classific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574-583.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iGuseppe, R., Linscott J., & Jilton, R. (1996). Developing the therapeutic alliance in child-adolescent psychotherapy.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5*, 85-100.
- Dupper, D. R. (1993). Preventing School Dropouts; Guidelines for Schoo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in Education*, *8*(3), 141-149.
- Elliott, R. & James, E. (1989). Varieties of client experience in psychotherapy: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9*, 443-467.
- Giaconia, R. M., Reinherz, H. Z., Silverman, A. B., Pakiz, B., Frost, A. K. & Cohen, E. (1995).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 Community Population of Older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1369-1380.
- Hammen, C. (1990). Generation of stress in the course of unipolar affective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1112-1117.
- Heaven, P. C. L., & Virgen, M. (2001). Personality, perceptions of family and peer influences, and males self-reported delin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321-331.
- Henry, D. B., Tolan, P. H., & Gorman-Smith, D. (2001). Longitudinal family and peer group effects on violence and nonviolent delinquen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2), 172-186.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 Williams, E. N. (2000). The process of individual therapy. In S. Brown & R.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670-710). New York: John Wiley & Sons.
- Johnson, F. N. (1984). Psychiatric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beyond DSM-IV. *IRCS Medical Science*, *12*, 373-376.

- Kandel, D. B., & Davis, M. (1986). Adults equate of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255-262.
- Kazdin, A. E. (1997). Practioner review: Psychological treatment for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161-178.
- Lester, D. (1987).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ress. *Jouranl of Home Economics*, *21*, 385-401.
- Lewitt, M. Z., & Selman, R. L.(1996). *The personal meaning of risk behavior: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riendship and fighting in early adolescence*.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Associates, Publishers, New Jersey.
- Lipsey, M. W., & Wilson, D. B. (1998). *Effective intervention for serious juvenile offenders*. In R. Loeber & D. P. Farrington(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pp.313-45). Thousand Oak, CA: Sage.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Thomson.
- Paulson, B.,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 Powell, K. M., & Rosen, L. A. (1999). Avoidance of responsibility in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327-340.
- Quay, H. C., &Werry, J. S. (1986).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New York: John Wiley &Sons.
- Robinson, L. A., Klesges, R. C., Zbikowski, S. M., & Glaser, R. (1997). Predictors of Risk for Different Stages of Adolescent Smoking in a Biracial Sample.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65*, 653-662.
- Shirk, S. R., & Russell, R. L. (1998). *Process issues in child psychotherapy*. In A. Bellack, M. Hersen (Series Eds.), & T. Ollendick (Vol. Ed.), *Comprehensive clinical psychology: Vol. 5. Children and adolescents: Clinical formulations and treatment* (pp. 57-82).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 Strauss, C. C., Frame, C., & Forehand, R.(1987). Psychosocial impairment associated with anxiety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235-239.

부록

1. 설문지
 2.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동반자의 사회인구학적 자료
 3. 학대관련 개별문항 경험유무 빈도
 4. 청소년동반자 면접 상세내용
-

부록 1. 설문지

☞ 청소년상담 관련요인 조사(A) ☞

안녕하세요? 청소년동반자 선생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 및 상담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동반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1-2페이지 부분은 **동반자 선생님**들께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응답하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 1-4페이지 부분은 **청소년 대상자가 본인의 특성 및 상담에 대한 생각** 등을 응답하는 부분입니다. 잘 확인하시어 설문 응답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반자 선생님과 청소년 대상자가 모두 설문이 완료된 뒤 함께 첨부하여 드리는 입력방법에 따라 CYS-Net 정보망에 입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시는 이 자료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힘드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성실히 응답 및 입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동반자용 질문지】

※ 청소년동반자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문항을 읽고 청소년 대상자에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세요.

1. 대상자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 년 월 일
3.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나 기관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인문계 고등학교 ④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⑤ 대안학교 ⑥ 검정고시 학원 ⑦ 직업학교 ⑧ 직업훈련기관 ⑨ 소년원 학교
⑩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4.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초등학교 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고등학교 1학년 ⑦ 고등학교 2학년 ⑧ 고등학교 3학년
※학업중단 청소년일 경우 학교에 다녔을 경우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5. 대상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인천광역시
④ 대구광역시 ⑤ 대전광역시 ⑥ 광주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강원도 ⑨ 경기도
⑩ 경상남도 ⑪ 경상북도 ⑫ 전라남도
⑬ 전라북도 ⑭ 충청남도 ⑮ 충청북도
⑯ 제주특별자치도
6. 현재까지 대상자의 상담 회기 수 : () 회
현재까지 대상자의 부모(양육자) 상담 회기 수 : () 회
7. 본 대상자의 현재 가정상태를 선택해 주세요.
① 가정해체 - 이혼 ② 가정해체 - 미혼모
③ 재구성 가정 ④ 다문화 가정 - 새터민
⑤ 다문화 가정 - 혼혈 ⑥ 해당 없음

☞ 청소년상담 관련요인 조사(B) ☜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정책 및 상담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점과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한 자신 장점에 관한 생각, 주변어른들과의 경험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여러분이 답해주시는 이 자료는 여러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힘드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용 질문지】

- 1)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2개를 골라 해결하고 싶었던 순서대로 표시하세요(1순위: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것, 2순위: 두 번째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가족문제	일탈 및 비행문제	학업 및 진로 문제	성(性)문제	성격문제	대인관계문제
정신건강문제 (우울, 불안 등)	생활습관/ 외모불만족 문제	컴퓨터/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	정보부족 문제	법률문제	

2) 다음의 문항들은 동반자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점들을 묻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내 모습을 잘 떠올리면서 내 모습에 가장 일치하는 점수에 표시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담선생님이 나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상담선생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상담선생님이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상담 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4 상담선생님이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담에 참여하기가 수월하다.	1	2	3	4	5
5 상담선생님과 빨리 친해진 것이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상담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도움이 된다.	1	2	3	4	5
7 상담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 해 준 것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8 상담시간에 그림 혹은 게임도구 등을 이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9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되도록이면 오래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10 상담선생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11 적극적인 내 모습이 상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12 상담선생님이 내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셔서 도움이 된다.	1	2	3	4	5
13 부모님(양육자)의 관심과 도움이 내 고민해결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4 강압적이지 않은 학교 분위기가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15 학교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16 친구들이 잘 도와주어서 상담이 잘 진행된다.	1	2	3	4	5
17 충동적인 내 모습 때문에 상담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	1	2	3	4	5
18 상담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상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끔 하는데 방해가 된다.	1	2	3	4	5
19 내 고민이 너무 심해서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상담에 몰입하기 어렵다.	1	2	3	4	5
20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상담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한다.	1	2	3	4	5
21 화를 벌컥벌컥 내는 내 모습이 상담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1	2	3	4	5
22 말수가 적은 나의 성격이 상담에 방해가 된다.	1	2	3	4	5
23 나의 우울한 성격이 상담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	1	2	3	4	5
24 상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담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	1	2	3	4	5
25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담을 방해한다.	1	2	3	4	5
26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상담 진행이 어렵다.	1	2	3	4	5
27 부모님의 불화가 상담 진행에 방해가 된다.	1	2	3	4	5
28 우리 집의 무관심한 분위기가 상담진행에 방해가 된다.	1	2	3	4	5
29 부모님(양육자)이 변하지 않아서 상담을 해도 고민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1	2	3	4	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거나 동반자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재미있는 일입니까?

- ① 상담선생님과 상담 받는 것 ② 이야기하며 간식 먹는 것 ③ 그냥 노는 것
 ④ 친구들 만나는 것 ⑤ 집을 나와 있다는 것 ⑥ 기타()

▶ 다른 친구들에게 상담 받을 일이 생길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겠습니까?

- ① 권유하겠다 ② 권유하지 않겠다 ③ 다른 곳에 가보라고 하겠다
 ④ 나를 상담해준 사람만 아니라면 권유해 보겠다 ⑤ 가지 말라고 적극 말리겠다

※ 어른들은 여러분이 말을 듣지 않거나 화나게 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가족들(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보, 고모, 친척 등)이 본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만약 1년간 그런 적이 없다면, 예전에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문항내용	지난 1년간 전혀 없다	지난 1년간 1-2번	지난 1년간 3-5번	지난 1년간 6-7번	지난 1년간 11-20번	20번 넘게	지난 1년간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예전에는 일어났음
1 나를 잡고 흔들었다.	1	2	3	4	5	6	7
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3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4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5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6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4	5	6	7
7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8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팼다.	1	2	3	4	5	6	7
9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 겐다고 말했다.	1	2	3	4	5	6	7
10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4	5	6	7
11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4	5	6	7
1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	1	2	3	4	5	6	7
13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14 나를 꼬집었다.	1	2	3	4	5	6	7
15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16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 눕혔다.	1	2	3	4	5	6	7
17 나를 '바보'나 '멍청이'등으로 불렀다.	1	2	3	4	5	6	7
18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19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4	5	6	7
20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았다.	1	2	3	4	5	6	7
21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다.	1	2	3	4	5	6	7
22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1	2	3	4	5	6	7
23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1	2	3	4	5	6	7
24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주었다.	1	2	3	4	5	6	7
25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	2	3	4	5	6	7
26 나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1	2	3	4	5	6	7
27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 열심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날들 보내세요 ☺

부록 2.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동반자의 사회인구학적 자료

대상자	성별	지역	학력 및 전공	직무형태	YC 경력	상담관련 자격증
01	여	서울 경기	석사 (사회복지학)	전일제	3년 8개월	청소년상담사3급 사회복지사 1급
02	남		석사 (사회복지학)	전일제	4년 7개월	사회복지사 1급
03	여		석사(상담학)	시간제	3년 5개월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04	여		석사(기독교상담학)	시간제	3년 4개월	사회복지사 2급
05	여		석사(아동복지학)	시간제	3년 7개월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06	여		석사(상담학)	전일제	3년6개월	-
07	여		석사(기독교상담학)	시간제	3년 5개월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3급
08	여		석사(임상심리학)	시간제	3년 4개월	임상심리사2급 청소년상담사 2급
09	여		석사(가족상담)	시간제	4년4개월	청소년상담사 1급
10	여		박사수료(기독교상담)	전일제	7년4개월	임상심리사2급 청소년상담사 2급
11	여	광주 전북	석사(사회복지학)	전일제	4년1개월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3급
12	여		석사(교육학)	전일제	4년6개월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3급
13	여		석사 수료 (사회복지학)	시간제	7년2개월	사회복지사 2급
14	여		대졸(청소년교육학)	시간제	5년2개월	유치원정교사 청소년지도사2급
15	여		석사(사회복지학)	시간제	5년2개월	사회복지사 2급
16	여	부산 경북	석사수료(아동가족학)	전일제	5년2개월	청소년지도사2급
17	여		석사수료(아동가족학)	시간제	2년3개월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18	여		박사수료(아동가족학)	전일제	7년7개월	-
19	여		석사수료(사회복지학)	시간제	5년2개월	청소년상담사 3급
20	여		대졸(공대)	시간제	4년11개월	-
21	여	충북 강원	석사(코칭심리)	전일제	3년 1개월	사회복지사2급 청소년지도사 2급
22	여		석사(임상심리)	시간제	4년 4개월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23	여		박사수료(불문학)	전일제	2년11개월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24	여		석사(사회복지학)	전일제	5년 4개월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부록 3. 학대관련 개별문항 경험유무 빈도

(명)

	문항내용	미경험			경험		
		초	중	고	초	중	고
신체적 공격	1 나를 잡고 흔들었다.	24	104	88	11	50	41
	2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23	110	89	12	44	39
	4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26	107	88	9	47	40
	5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28	124	103	7	31	24
	6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34	137	116	7	17	10
	8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팼다.	29	123	91	6	30	38
	10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33	146	126	2	7	3
	12 벨트, 밧,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	24	113	89	11	41	40
	13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24	95	80	11	60	48
	14 나를 꼬집었다.	29	129	108	6	24	21
	15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34	148	116	1	6	12
	16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 눕혔다.	31	137	102	3	16	25
	18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24	113	88	10	41	41
정서적 공격	3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3	53	33	21	101	95
	7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21	83	54	14	72	74
	9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보내쫓겠다고 말했다.	23	104	82	12	50	47
	11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27	92	82	7	60	47
	17 나를 '바보'나 '멍청이'등으로 불렀다.	27	119	90	8	35	38
방임	19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30	134	104	5	19	25
	20 내가 원할 때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았다.	24	110	91	11	45	38
	21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다.	27	113	85	7	38	39
	22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30	129	103	5	24	25
	23 술이나 약물에 취해 나를 돌보아주지 못했다.	31	142	111	4	11	17
비폭력적 훈육	24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주셨다.	12	51	49	23	103	78
	25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9	87	81	16	66	46
	26 나의 특권(TV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했다.	23	102	85	12	51	43
	27 나를 잠깐 격리시키거나 방으로 들여보냈다.	26	123	102	9	32	27

부록 4. 청소년동반자 면접 상세내용

1.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미치는 요인

(명)

영역	범주	응답빈도
상담자 개인변인	1)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역량	전형적(13)
	2) 따뜻함과 배려	변동적(3)
	3) 변화를 위한 노력	변동적(5)
	4) 열정	변동적(3)
	5)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	드문(2)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	1)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라와주고 노력함	변동적(6)
	2) 단답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자발적임	변동적(6)
	3) 무기력함과 철수됨	변동적(7)
	4) 부정적 마인드	드문(2)
	5) 반항하거나 비협조적임	변동적(3)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	1) 부모	전형적(16)
	2) 경제적인 어려움	변동적(8)
	3) 학교와 교사	변동적(3)

1-1. 상담자 개인변인

1)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역량

사례 15. 상담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구요, 그니까 전문적인 지식.. 말하자면 분야별로 중독에 대한 그런 지식도 개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거, 자살, 그런거에 대한 상담개입에 대한 그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사례 19. 정말 중요한 거는 상담자가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럴까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거에 따라서 상담이 많이 좌우되지 않나...
어 정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8. 임상을 전공하고, 임상수련도 받았기 때문에 검사를 조금 더 해석을 해주는 장면에서 검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전문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사례 16. 내담자와의 라포형성이 첫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라포형성이 충분히 되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고 수용해주다보면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러면 훨씬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2) 따뜻함과 배려

사례 7. 엄마 같은 따뜻함이라든지 그런 배려

사례 10. 어떤 그런 상담자의 따뜻함이라든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예의바른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여하고, 그리고 상담 이후에도 연락이 오고...

3) 변화를 위한 노력

사례 10. 수련을 받고 슈퍼비전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발전하고 상담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례 22. 융통성을 기르려고 정말 생각을 정말 많이해요

사례 11.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바꾸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맞추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호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니 조금 제가 많이 변하고 제 변화된 모습들 때문에 부모님이나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4) 열정

사례 10. 그런 열정, 청소년들을 향한 어떤 열정, 뭐 이런 것도 요인이 된다고 봐요

사례 7. 내담자가 어떤 가능성이 보였을 때, 좀 지나친 열정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함께 합의해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내담자에 따라서 시너지가 되는 사례도 있고 어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 힘을 얻는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5)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

사례 15. 또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키워봐서 사춘기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봐서 성장 지켜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도 알고, 또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사례 8. 비행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비행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친구들을 대할 때... 제가 전에 배웠던, 경험했던 것들이 상담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1-2.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

1)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고 노력함

사례 13. 적극적인 아이들은 역시 굉장히 짜르게... 단기상담만으로도 아주.. 그 기대했던 목표했던 그런 성과를 볼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던 아이들은 상담자인 나 역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그리고 결과도 좋아서..

사례 19. 아무래도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음... 우선 서로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될 경우에는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해결점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례 22. 자발적인 아이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도 더 이렇게 진행이 되고

2) 단답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자발적임

사례 11. 단답형으로 얘기한다거나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들은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본인이 하지 않아버리면 사실 어렵죠

사례 19. 표현을 잘 안하는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을 안하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3) 무기력함과 철수됨

사례 21. 자기개방이 부족한 아이와 철수한 아이 이런 아이들은 어... 라포를 형성하는 기간이 긴 거죠. 철수한 아이들이요. 특히

사례 7.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들이 있잖아요 ... 그런 자원들이 너무 억압되어있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상담장면에서도 굉장히 접근이 어렵고 개입을 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4) 부정적 마인드

사례 7. 좌절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 24. 십자가처럼, 아, 난 안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아이,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됐을 아이 그런게 박힌 아이들은 어지간해서는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결과에서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5) 반항하거나 비협조적임

사례 14. 그, 정말 반항적인 아이들은 ... 어... 끝까지 정말... 이렇게 분손해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도하고, 시간만 때우려고 그냥... 어떤 상담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례 17. 너무 방어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런 저항이나 방어가 있으면 진짜 하기 힘들고, 안타까움이 있고...

1-3.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

1) 부모와 가정

사례 15. 거의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님하고 연관이 거의 되어있다고 보잖아요.. 가족환경 아니면 양육방식이나...

사례 21. 부모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되게 힘이 없어... 어릴 때 이혼하고, 싸우고 아버지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애를 이렇게 방임해 버리면

사례 6. 부모님이 되게 지지자원이 되면 성과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똑 같이 중독이라라고 해도, 협조적이시고 아이에게 관심이 많은 경우는 확실히 빨리지고, 종결도 빨리 되었던 것 같아요

2) 경제적인 어려움

사례 5. 확실히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면요. 다 그런건 아닌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 그런 부분은 안타깝죠. 상담성과에 조금 미치기도 하죠. 그런 영향들이.

사례 19. 경제적인 부분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아무래도 좀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우면 그만큼 그게 관심을 갖고 싶어도 절대적인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3) 학교와 교사

사례 8.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어렵죠

사례 9. 학교도... 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알고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러면...음. 선생님들마다 다르니까

2.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

(명)

영역	범주	응답빈도
청소년들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	1) 스스로 달라진 것을 느낌	변동적(7)
	2) 부모나 주변에서 이야기해주어 알게 됨	변동적(3)
	3) 변화까지는 못 느끼나 도움이 되었음	변동적(6)
	4) 잘 모르겠음	드문(2)
	5) 종결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됨	드문(2)

1) 스스로 달라진 것을 느낌

사례 16. 자기가 어떻게 변화했다는 것을 조금조금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례 4. 아... 자기가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노력을 해봤더니 됐을 때.. 아. 참 좋더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이 상담을 하고나서는 친구들을 데려오고, ..상담 좀 의뢰하면 안되요? 이러면서 상담의뢰를 하고..

사례 23. 본인들도 달라진 걸 느껴요.. 말하죠

2) 부모나 주변에서 이야기해주어 알게 됨

사례 5. 아이들은 상담 중에는 잘 모르는데 부모가 느껴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정말 그래?'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거 같고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줬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고

사례 21. 어른들이 질문을 하고 이끌어주고 해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3) 변화까지는 못 느끼나, 도움이 되었음

사례 5. 조금 부족한, 뭔가 변화가 안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3개월 가지고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변하거나 거기까지는 별로 관심은 없고, 그냥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좋았다’ 이 정도...

서울 2. 다양하게 좀 지각하고... 어쨌든 조력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맞는 것 같아요

4) 잘 모름

사례 23. 그냥 그랬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 뭐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5) 종결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됨

사례 7. 그때 다닐 때는 몰랐지만 대학을 갔거나 직장을 갔을 때 이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고맙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례 3. 상담 종결되고 나서 전화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취업했어요... 뭐 했어요... 애슐리에서 밥 사준다고 그런 애들도 있고

3.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

(명)

영역	범주	응답빈도
청소년동반자의 상담성과에 대한 지각	1)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느껴짐	변동적(10)
	2) 성과와 상관없이 보람을 느낌	변동적(4)
	3) 어떤 면으로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변동적(7)
	4) 공감, 친밀감,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느낌	변동적(3)

1)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느껴짐

사례 21.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계속 체크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어 있는가 보는거죠. 그러면서 성과를 아는거죠

사례 7.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거나 학교 부적응 같은 게 적응되는 거,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가 재개가 되고, 이제 소통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확장되거나... 그럴 때 쯤 그런 거를 느낄 수 가 있구요

사례 9. 그 목표에 대해서 상담 성과 목표에 대해 성취가 되었으면, 그리고 친구가 변화가 있었으면, ‘아.. 음... 변했구나’

2) 성과와 상관없이 보람을 느낌

사례 1.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게, 지금은 효과가 없어도 나중에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준에 볼 수 있는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례 23. 저는 일단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구요. 성과는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나든 작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3) 어떤 면으로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함

사례 8. 50%는 성공하고 50%는 실패하는 거 같고.. 그래도 음 조금 완전히 건강해지진 않지만 애가 적응할 수 있는 힘은 생기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사례 6. 처음에는 진짜 자존감 완전 깎아졌구요. 지금은 나름대로 조금 그..나는 관찮게 아이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터널을 잘 지나가게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사례 22. 사실 막 큰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아니... 아이들이 뭔가 변하고 싶은 의지만 생기면은 상담에 성과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4) 공감, 친밀감,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성과가 있다고 느껴짐

사례 15. 일단은 아이하고 신뢰가 잘 쌓였다.. 잘 되가지고 대화가 잘되는지 일단 그거가 저한테는 제일 크게 와 닿고

사례 7. 상담사가 금방 이렇게 진해오디는 과정에서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주로 친밀해지고 어떤 공감을 하고, 신뢰가 형성되면, 상담효과성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Abstract

Through Hierarchical Analysis, Derivation The Type of Youth into Counseling Needs and Successfully Counseling

-The Target for the Youth Companion Youth-

Youth Companions (YCs) are psychological counselors who visit their clients. YCs are qualified and experienced counselors in the field of youth counseling. YC Program was started as a pilot project in 2005, however, YCs have played the professional interven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youth crisis. Youth crisis such as running away from home, school violence, school disruption, and suicidal problems have been showing a tendency to continue to increase in numbers and types. The youth counselors are needed to be professional in many types of youth problems and be able to intervene them instead of being tied to a specific problem. Therefore, it is the time to be made concerns on how to intervene the various problems of the clients of the YCs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ore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s by classifying the complicated problems of the youth in the hierarchy with an in-depth focus on interventions derived from a qualitative study of the case study.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 and necessary policies for the YC Program through the analysis. To do this, it identified the operational status of projects, analyzed the problem types and the counseling needs of the YC clients, interviewed the YCs in-depth, and analyzed by CQR.

As a result, the consequent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above study are the following processes. First, the summary data analysis of the Youth Companion program showed that the Youth Companions provided an average of 9.1 counseling meetings and 21.5 supporting

services per one youth case based on the terminated cases in 2013. The numbers of supporting services shows that YC strived to provide the various counseling services beyond the verbal counseling sessions.

Among the early terminated cases of 1,243, 570(45.9%) cases were terminated by refusing services, Guardian denials of services, runaway from home, contact lost, and etc. are 233 (18.7%). It is necessary to present interventions specifically for the involuntary youth based on the analysis. It also suggests that the Youth Companion services should target youth as well as parents, and the specific intervention strategies are required to maintain counseling.

Second, the analysis of hierarchical classification and hierarchical counseling needs of the Youth Companion clients are as follows. In the family environment, the divorced (32.1%), reconstructed (8.2%), and single mother families (17.2%) take in the high percentages. It also shows the desire of the parental counseling is high(74.9%) but, they have difficulties to make times for the counseling sessions (48.0%). These results suggest the visiting counseling services for the parents and families are desperately needed.

'Personal problems', family problems', 'school and peer problems', and 'community problems' are the major youth problem types and are categorized as the two-layers hierarchical analysis showed that in each of these types are classified as high-risk and low-risk layers hierarchy. High-risk layers coexist with two or more types of complex question types, and low-risk were found in type with less than one low-risk layers.

By analyzing the counseling needs of each layer, the internal and family factors to inhibit the counseling effectivenes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ow-risk layer in statistics. The result is that a high risk hierarchy is in high for impulsivity, negative personality, and depressive temperament, so that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is effective counseling compared to low-risk inner substrate layer. It suggests that family counseling intervention are needed for the high risk hierarchy because family of indifference, conflict and discord, etc are in problems in the risk hierarchy.

Thirdly, it represents the counseling expertise of the YC as the counselor factor by in-depth interviews with YCs about influencing factors of counseling success, and the parents and family are the most common factor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clients. In other words, the counselor with expertise, and interest and support of the family are necessary to lead the

successful counseling. This result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high-risk layer that is at least two problems coexist with a problematic factor that might interfere with the counseling of families. These results suggest the involvement of the family as well as individual counseling be required.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capacity of parents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counseling services to youth who receives a Youth Companion service.

To enhance the expertise in counseling of the YC, training and supervision are necessary for them. In particula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interests, such as low-risk and high-risk layer for each type of problem should be made in order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for youth. And also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Youth Companion capacity through systematic training.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and counseling needs of the clients of the Youth Companion, and derive the effective counseling factors. Hierarchical analysis and the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It determines the types and status of the client of the Youth Companion, understands their counseling needs, and draws the factors to lead counseling successfully, so that it finally suggests the policy propositions. As a result, it suggests the ongoing studies are needed afterwards such as specific counseling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the various types an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and counseling manuals.

